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 감염병-기후변화-해외사이버공격 지적 퓨리서치센터, 연례 세계 위협요소 국가별 설문조사 보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을, 유럽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덴마크와 호주는 '해외 사이버 공격'을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Despite Pandemic, Many

Europeans Still See Climate Change as Greatest Threat to Their Countries: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top concern in the U.S., UK, Japan and South Korea as global economic concerns grow).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매년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테러, 해외 사이버 공격, 핵무기 확산, 세계 경제 상태, 빈곤, 국가나 민족 간 오랜 갈등, 대규모 이주 등 9개 항목에 대해 각국 국민이 얼마나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지 추적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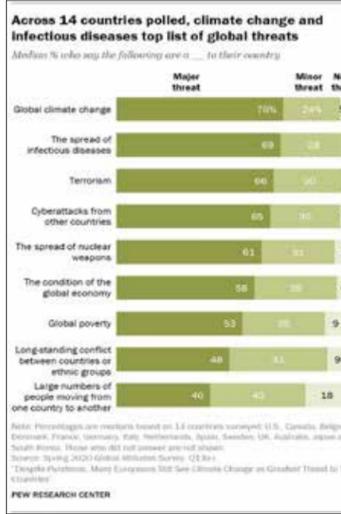
올해 역시 14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8개국이 기후변화, 4개국이 감염병 확산, 2개국이 해외 사이버 공격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다.

작년에는 26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13개국이 기후변화, 8개국이 IS, 4개국이 사이버 공격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바 있다.

한국은 10명 중 약 9명(89%)이 감염병 확산이 국가에 중대한 위

이에 다수 한국 언론은 '한국인 코로나19 걱정 선진국 중 최고 수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대부분은 '감염병은 두려워하는 것이 옳으며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은 "적당한 긴장과 걱정이 있어야 조심하고 방역수칙도 지키기 조금만 풀어져 봐라 3단계 가도 못잡는다"며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위협을 느끼



해외 사이버 공격(83%), 글로벌

### 불편한 기독교 생명과 변화로 이어진다

TGC, 점점 더 '편안한 기독교' 가 되어가는 8가지 사인 제시

오늘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란 참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란 본래 '불편'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마16:24), 십자가를 지고(눅14:27), 박해를 받고(요15:20; 딤후3:12), 집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며(눅9:58), 가족이라는 우선순위를 저버리고(눅9:59-62; 14:26),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서(마19:21; 눅14:33),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갈2:20)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주의 사회에서 편안함을 찾는 일



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중에 '편안한 기독교'를 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독교가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기분 좋은 와인 한 병처럼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TGC의 편집장, 브렛 맥크레켄(Brett McCracken)은 편안한 기독교임을 알려주는 8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해준다(8 Signs Your Christianity Is Too Comfortable).

바로 여기에 당신의 기독교가 너무 편안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덟 가지 신호가 있다.

1.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관점이 서로 전혀 맞닿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어떤 정당을 온전히 지지하면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그 정치 관점 사이에 아무 긴장도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어쩌면 너무 편안한 신앙일지 모른다. 평생 어떤 정당을 지지했던 간에 확고한 기독교 신앙은 당신의 정치 관점과 여러 지점에서 불일치를 일으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가지 정치 성향과 완전히 일치하는 신앙은 의심스러운 정도로 편

안하며 선지자적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신앙이다.

2. 역설이나 긴장 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없다

(삼위일체, 성육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임재 등) 기독교 신학의 난해한 교리에 대해 고민하거나 씨름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너무 편안한 신앙일지 모른다.

건강하고 불편한 신앙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들쭉

실 뿐 아니라 당신을 들뜨게 만들 것이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전에는 당신을 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3.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듣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놀란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황성주 목사, 마이클 조 선교사

### 미국(78%), 한국(89%), 일본(88%) '감염병 확산' 큰 위협으로 유럽은 '기후변화', 덴마크와 호주는 '해외사이버공격' 높아

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본 역시 88%, 미국과 스페인이 78% 그리고 영국이 74%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보다 기후변화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부분 '방심은 금물'이라며 두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은 감염병 확산(89%) 의

경기(83%), 국가나 민족 간 갈등(71%), 대규모 난민 이주(52%)에 대한 우려 정도도 1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조사 대상 지역에 따라 ±3.1-4.2%포인트다. (3면으로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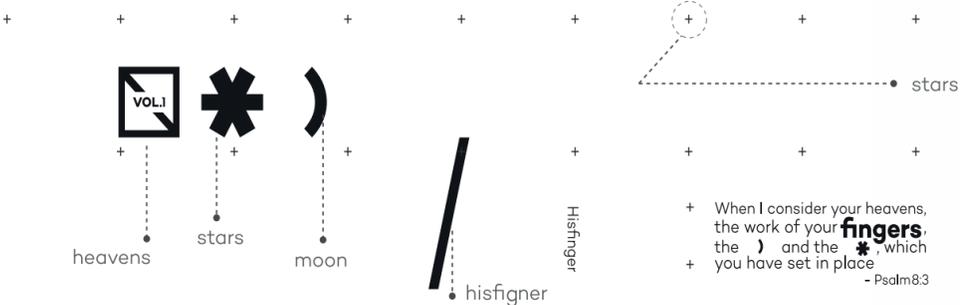
성경암, 성경대독,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2000.org | chp@1010hgmp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전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 and the \*,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 발행인 칼럼 ●

### 고통 중의 한 단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우리 모두는 살면서 여러 차례 아프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고통도 맞게 된다. 가장 극심한 고통은 언제 있으셨는가. 아직도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힘들다”, “죽겠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등등 절망과 원망의 단어들은 아니었는가?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고통 중에도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고백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고통 중에 감사를 말하는 자는 아름답다. 다니엘은 역경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야 했다. 고통 가운데서 그가 굳게 붙잡은 한 단어는 무엇인가?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알 수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진심으로 살아야 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나의 네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고통 중에 꿈이란 한 단어를 붙잡았다. 그를 총으로 쏜 자가 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총으로 죽일 수 없었다. 그는 떠났어도 그의 꿈은 그 성취를 향해 오늘도 날아오르고 있다.

며칠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회 목사님이 있으셨다. 목사님은 5년 3개월 동안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교회 강단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그 긴 고통의 시간에 간간히 비울 때면 그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소년같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사랑과 믿음의 언어로 듣는 이의 마음을 촉촉이 적어 주셨던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얼마 전 이런 글을 보내주셨다. “노회장님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영광위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기도해 주세요. 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영광 받으심을 기도합니다. 노회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시간을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목사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목사님의 높은 세상에 대해 점점 잠겨갔어도 하나님 영광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보이시는 것 같았다. 믿음이 아니 고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목사님의 마지막 글이셨다. 고통 가운데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묻는다면 많은 자녀들이 “자유”라고 말할 것 같다. 수개월 동안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였고 여전히 교회나 학교에 출입에도 많은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다. 친구들과도 가까이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미안함과 괴로움은 깊어간다. 우리들의 잘못으로 이런 오랜 고통을 저들에게 안겨주었다는 책임감이 더욱 저며 온다. 저들에게 절실한 단어는 자유이리라. 그 자유가 마스크, 거리 제한, 출입 제한으로부터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더 본질적인 자유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고통 중에 한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감사, 꿈, 영광, 자유 등 다 귀한 단어이다. 고통 중에 꼭 붙잡는 나의 단어는 무엇인가.

## 성령의 능력 받은 크리스찬=오순절주의자?

CT, ‘오순절주의자’ 용어로 설명 못할 만큼 커진 성령 능력 받은 크리스찬들 증가세 점검

“여러분은 오순절주의자(Pentecostals)이신가요?” 고든 콘웰 신학교의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토드 존슨은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만난 중국 크리스찬들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신학적으로 오순절주의자처럼 보여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들은 대답했다: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하십니까?” 존슨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성령 세례를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신유와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실천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존슨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오순절주의자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달랐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중국에서 청취할 수 있는 미국인 라디오 설교자가 있는데, 그는 오순절주의자

이더군요. 우리는 그와 다릅니다.” 그 중국 크리스찬들이 설명했다.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오순절주의자라고 불리지 않는 오순절주의자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수수께끼처럼 들리겠지만 이 질문이 학자에게는 풀어야 할 큰 숙제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성령과 개인의 관계를 강조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이 폭넓고 다양한 운동에 적합한 용어를 붙이려고 노력했다 (Have Pentecostals Outgrown Their Name?: More than a quarter of the global church falls under new and debated label: “Spirit-empowered Christianity”).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에 6억4,400만 명, 전체 크리스찬의 약 26%가 속해있다고 세계기독교연구센터의 최신 연구보고서는 집계했다. 이 연구는 21세기의 저명한 오순절주의자의 이름을 딴 오탈로버츠 대학교와 공동작업으로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이 기독교그룹에 대한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종합적인 인구학적 분석이다.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

어를 제한한다. 존슨은 CT(Christianity)와의 인터뷰에서 “이름이 계속 문제였다”며 “우리가

에서 열린 다인종 집회와 연결돼있다. 당시 LA타임스는 이 집회를 두고 “이상하고 시끄러운

다. 존슨은 “결국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세례/침례 문제가 공통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학자들이 이 새로운 용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펠리를 벽에 박는 힘들다” 클레먼트대학원의 종교학 교수이자 “신앙의 유입: 20세기 미국과 멕시코의 오순절주의”의 저자인 다니엘 라미레즈의 말이다.

라미레즈는 오순절주의의 힘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오순절주의를 취하고 만들



### 세계 교회 25% 이상 “성령 능력 받은 기독교” 새롭고 논쟁적인 이름으로 불러

들과 언론인들이 널리 인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이 카타르, 캄보디아, 부르키나 파소와 같은 지역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짐바브웨, 브라질, 과테말라와 같은 지역에는 전체 크리스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이니 말이다.

“글로벌오순절주의” “오순절주의/은사주의” “리뉴얼리스트(갱신주의)”라 불리기도 하는 이 운동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려는 토론에서, 토드 존슨과 그의 공동 저자이자 공동책임자인 지나 절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기독교”(Spirit-empowered Christianity)라는 새로운 용

말을 하는 “새로운 종파의 열광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은사주의(Charismatic)”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시작된 한 부흥운동과 연결돼 있다. 이 운동에서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받았지만 그들 대부분은-특히 성공회와 가톨릭교인들- 자신의 교단에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주요 교단들로부터 독립적이고 역사적인 아주사 집회와도 연결되지 않은 다른 그룹들도 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주심과 성령 세례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 하지만 이들의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는 방식이 다르

어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순절주의는 적응, 전달, 재상 가능성이 무궁하다.

예를 들어, 한 멕시코 원주민이 아주사스트리트 부흥회에서 성령을 받고, 통역을 통해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아주사 부흥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학이나 종교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제어하지 않았다.

아주사피서픽대학의 종교학 교수이자 ‘미국의 오순절주의’의 저자인 알린 (3편으로 계속)

어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순절주의는 적응, 전달, 재상 가능성이 무궁하다.

예를 들어, 한 멕시코 원주민이 아주사스트리트 부흥회에서 성령을 받고, 통역을 통해 그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났다고 라미레즈는 말했다. 아주사 부흥회에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학이나 종교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제어하지 않았다.

아주사피서픽대학의 종교학 교수이자 ‘미국의 오순절주의’의 저자인 알린 (3편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역사/기분/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 뉴저지) Tel. (201) 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미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콜성, 담낭, 췌장 췌관염,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저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료, - 미용성형치료, - 신경 및 잇몸치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2020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9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7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회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www.newlife-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응모마감** 2020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20년 12월 13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를 참조하시고, 이메일(newlifechurchscholarship@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of Chicago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www.newlife-chicago.org

### 감염병-기후변화-해외사이버공격 지적

(1면에서 계속)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코로나19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기후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주요 위협 요소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역대 가장 높은 비

율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응답자는 무려 83%가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70%가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 대규모 이주 등에 위 네 국가가 모두 50% 이하로 우려한다고 답한 것과 상반되는 수치다.

다만 이들도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작진 않았다. 유럽 전반으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는 크게 늘었다. 영국에서는 아예 감염병 확산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뛰어넘기도 했다. 한국 외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이 감염병 확산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캐나다는 감염병 확산을 기후변화와 동일한 수준의 위협으로 꼽았다.

기후변화, 사이버 공격, 테러 등이 수년 전부터 위협으로 간주된 것과 달리, 감염병 확산이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꼽힌 것으로 올해가 처음이다. 퓨리서치센터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코로나19로 장식된 오늘날에 이 같은 현상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함께 내놓았다.



### 시론

## 석류는 이미 저토록 붉어졌는데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인생을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을 나그네길 또는 여행길이라 부른다. 인류는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가 말과 같은 동물이 나 바퀴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엔진을 개발해 추진력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대로 속도를 즐기지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십 년 전의 일이다.

길을 떠나는 여행은 자유롭지만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한 길이다. 그래서인가, 인류의 역사는 불편을 감내해왔고, 불안한 흔들림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자연재해가 무섭게 흔들어대고, 때론 전쟁이 흔들었다. 그리고 가끔 전염병도 온 세상을 흔들었다. 14세기에 창궐했던 흑사병(黑死病, Black Death)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유럽 전역을 흔들기도 했는데 이 외에도 콜레라, 결핵, 천연두, 독감, 에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이 지구촌 곳곳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환경위생 개선과 더불어 예방백신과 항생물질 개발 등을 통해 지구상에서 잠시 사라지곤 했다. 이에 미국 공중위생국장이었던 윌리엄 스튜어트는 '전염병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지만 이 말이 채 귀전을 떠나기도 전에 나타난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같은 새로운 전염병을 장착한 전염병이 한바탕 휩쓸더니 마침내 초강력 핵폭탄같은 COVID19이 지금 각 대륙을 몇 달째 흔들고 있다. 이 흔들림은 결국 가장 평범한 단어이자 안도의 숨을 쉬게 해주던 일상(normal)이라는 단어마저 쫓아내고 new-normal이라는 신조어의 웃을 입고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폐쇄시켜버렸다.

지금 인류는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인류가 만난 길을 예언이라도 하듯, 남성보컬그룹 god가 이미 19년전인 2001년에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어디로 가야 할 길이 열리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 한국 신경정신의학회 백중우 재단장신경건강위원장은 "사회적 신뢰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핵심자원"이라고 길을 제시하면서 "물리적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길 잃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첫째 화살인 경제적 문제나 건강문제와 같은 것은 피할 수 없는 화살이지만 이어서 날아오는 두 번째 화살인 불안, 공포, 혐오감 등의 화살은 피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두 번째 화살만 피해도 인류는 살 길을 찾아갈 여유가 있게 된다"고 안심시키는 설명을 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들도 "일반적으로 심리방역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두 가지를 든다면 사회적 신뢰와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연대감"이라고 거두고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 정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 그래서 힘 역(力)자를 붙여서 정신력(精神力)이라고 부르지는 않는가. 그런데 이 정신력은 지식에서 나온다고 한다. 의과대학생이 처음 세균학 실습을 하고나면 모두 열심히 손을 씻는다고 하는데 실습시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균투성이 자기 손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면역학 수업을 받고 나면 수시로 손을 씻던 습관이 다시 이전의 일상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미세한 바이러스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인간 스스로 강력한 면역체계가 몸 안에서 활성화되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균형 잡힌 바른 몸짓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해주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말이다.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소개하는 복음서 중에 특히 마가 복음은 길의 복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스토리가 길과 연결되어 기록되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9면으로 계속)

### '불편한 기독교', 생명과 변화로 이어진다

(1면에서 계속)  
당신의 신앙이 너무 편안하다는 확실한 신호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조차도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편안하게 사는 크리스천은 진리를 모르는 이웃들과 동일한 삶을 살며 똑같이 이야기하고 행동해서 쉽게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5.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언제나 대화하기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 좋은 사람들, 당신의 견해, 취향, 기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만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기독교는 너무 편안한 기독교다.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복음이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이다.

4. 월요일이 되면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만약 주일에 예배에서 들은 설교를 쉽게 잊어버려 교회를 벗어나 뒤에는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너무 편안한 기독교일 것이다.

6. 도전은 받지 않고 지지만 받는다

만약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당신의 이상을 깨닫도록 하지 않고, 어떤 죄악된 습관들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지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신앙이 너무 편안하다는 신호다.

성경적 설교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도전 받지 않은 상태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이다(히4:12).

건강한 신앙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답지만 불편한 과정을 통해 당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격려했다

게 다듬고 빚어간다.

7. 동료 크리스천과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진리'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

범죄나 죄에 대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오히려 각자 서로의 삶에 참견하지 않는 편이 언제나 더 편안한 선택이다.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간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 그저 무시해 버리는 것이 더 편안한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진리와 대치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믿음이 사랑 가운데 진리를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너무 편안한 믿음이다.

8.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일은 변화를 수반한다. 비록 언제나 곧게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크리스천의 삶은 앞을 향해 성장하는 삶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만약 당신이 거의 자라지

않아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성장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신앙은 너무 편안한 신앙이다.

그렇다면 왜 '편안한 기독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 편안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가 크고 불편한 길을 걸으며 위상을 부수도록 도전하지 않고 심자기를 지는 고난도 감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안한 기독교는 편안하고 소비지향적인 세상에 어떤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기독교다. 편안한 기독교에는 선교에 대한 열광함도 없고 성장을 향한 능력도 없다.

반면 '불편한 기독교'는 생명과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희생을 특징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던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하기 힘든 일을 하도록 하고, 어려운 진리를 끌어안도록 하며,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한다. 그러한 삶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그 불편함의 이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

### 성령의 능력 받은 크리스천=오순절주의자?

(2면에서 계속)  
산체즈-월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흥미로운 이유는 처음부터 다양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이것을 담은 새로운 용어를 찾고, 나는 '오순절주의'

라는 이 말을 사용해 오순절주의의 기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오순절주의는 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아주사 가에도, 웨일즈에도, 인도에도 있다" 단일 용어는 또 다양한 크

리스천들이 실제로는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안티아 버틀러(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종교학 교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여성들" 저자)는 주장한다.

전통과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모으면 각자의 역사적, 신학적 특징이 가려, 방언을 하는 가톨릭교, '거룩한 웃음'을 웃는 빈야드교회, 순결과 예언을 강조하는 Celestial Church of Christ(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늘교회)의 그 특징이 모호해질 수 있는 위험

을 감수해야 한다.

버틀러는 "성령 능력 받은 사람들"과 예전의 오순절주의자들이 '그 영은 악령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엑소시즘(축사의식)이 아니라면 아무도 가톨릭사제를 나이지리아의 은사주의 교회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적 차이를 축소하고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용어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간격을 벌릴 수도 있다고 세실 로베 풀러신학교 교회사 교수는 말한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986-4400 (대표)  
 · Fax (718) 9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usa@midwest.edu

##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 Dynamic pastoral leadership

###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 변할 수 있는 상황과 변치 않는 진리 사이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사회적 질서와 가치관들이 여지없이 탈바꿈을 했습니다. 미처 변하지 않는 상황도 앞으로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코비드19이 등장하면서 먼저 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선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합니다. 생업의 패턴들도 변했습니다. 현장 매매가 끊기고, 요식업체들은 주문 내지는 픽업의 패턴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쇼핑의 수단도 오프라인 매장

들은 6개월째 폐문함으로 줄도산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업체들은 승승장구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도 현장수업보다는 온라인 원격수업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친족들도, 친구들의 만남도 가능하면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 만남의 기초 반응인 기존의 인사법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접촉보다는 비접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진 것이 두려워서 현금결제보다는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집회보다는 화상미팅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에는 일장일단의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변하면 안되는 진리체계마저도 바뀌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3월부터 현장예배를 온라인 영상예배로 단번에 바뀌버렸습니다. 모이고 상호 교제하는 공동

체 본질인 교회관을 흠어진 교회관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소수로만 모이도록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관도, 목회의 패턴도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의 포로로 죽음을 맞는 임종의 현장에도 참여할 수 없는 냉정한 상황으로 바뀌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병상에 목사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급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기존의 사회적 관습과 본질을 바꿔 버린 상황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급박한 현실적인 상황이 영원한 진리와 사회적 윤리와 가치관까지도 바꾸려 하는데 있습니다. 관혼상제의 관습이나 풍습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의 양상도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교육이 원격 교육으로, 수업방법이나 매체와 형태

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이란 인성과 덕성을 겸비함으로 지식 추구와 평생 선택해야 하는 생업적 재능을 향상하여 복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용 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신적 존재와 신적인 가치는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전투 속에서 예배당 예배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을 당한 현장에서 평소의 예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비상한 상황을 정체가 악용하여 교회관과 예배

의 본질을 흠뜨려 놓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폭군들이 집권할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 비록 일생을 햇빛을 보지 못하는 카타콤에서 감바도기아 지하도시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대를 이어 계속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반 교회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상황으로 돌변한다고 해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상황하라는 이름으로 변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방법론에는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지만 본질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과 변치 않는 진리 사이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서 나라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jykim47@gmail.com

#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뉴욕 심령이가난한교회)



때에 예기치 못한 탓에 빠지듯 돌연히 임하여 큰 낭패를 안겨다줄 것이라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어 불안하고, 걱정되는 가운데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기주의적 자기 방어, 혹은 그 반대로 실의에 빠져 자포자기하거나, 허무주의나 사회주의에 빠져 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탓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9:12)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돌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에게도 재앙이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날이 갑자기

람에게 종말이 임할 것이며, 그 때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심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니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어려움도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재앙이다. 단절의 재앙, 두려움의 재앙, 고통의 재앙, 슬픔의 재앙, 죽음의 재앙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사는 동안 이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막13:36, 37)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나아갈 바를 깨달아 알 수 있기에 종말의 때에는 늘 깨어 기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벧전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2)항상 깨어 있음으로(36절)

“깨어 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마귀와 더불어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는 말세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살전5: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 지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주의 재림이 임하여 마지막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힘든 현실 가운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시대 상황에 처해 있다. 1)마음이 둔하여 질 위험에 있기 때문이며 2)땃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며 3)우리로 재앙과 재난 그리고 심판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1)항상 기도함으로 2)항상 깨어 있음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마음이 둔하여 지지 않고,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번민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이 항상 깨어 기도할 때이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땃에 걸리게 하려하고, 우리의 숨통을 쥐려는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아멘.

pspcny@gmail.com

#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때

누가복음 21장 34-36절

여러분! 대면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마음 놓고 할 수 없고 수양회나 수련회도 쉽지 않고 기도원도 갈 수 없고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단기선교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을 믿음의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커다란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하셨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종말에 성도들이 주의하여 조심할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

단순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함을 이르고 있다. 즉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종말의 때를 생각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염려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이유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살펴 교훈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적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 가정적 변화, 개인생활의 변화, 생각의 전환, 이 모든 것이 일시에, 정말 짧은 시간사이 벌어진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기에 자칫 방심하거나 한눈을 팔게 될 때 그동안의 인생, 그동안의 시간, 그동안의 노력,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의 지식, 그동안의 신앙 등을 잃어버린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경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 되 너희가 여찌 딱이 없으므로 수군거리거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기억조차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때, 왜 그리해야 하는가?

1. 마음이 둔하여 질 위험에 있기(34절)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을 경계해야 함을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이르고 있는 것이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방탕’과 ‘술취함’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으로 세상의 쾌락과 관습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8:16-18)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딱이 없으므로라 하거

더 사랑하고 추종할 때 환경과 상황만을 탓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할 때 꿈도 계획도 없을 때 마음이 둔하여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때이다. 연합국가, 연합종교, 미국의 달러, 과학자가, 사업가가 우리를 지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땃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땃’은 문자적으로 ‘함정’, ‘울가미’와 같은 뜻이지만 비유적으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을 나타낸다(롬11:9; 시68:23).

평상시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놓여있던 땃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다치듯이 여기에서의 땃은 일상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곧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 만약 스스로 조심하여 경계를 서지 아니하면 종말은 전혀 예기치 않은

임하게 되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인생들은 땃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탄의 미혹에,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땃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탄은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이용하고, 점점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의 변화를 통해 성도들을 옥죄고 있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여유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기 위해 온갖 계략과 책동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탄의 술책과 세상의 유혹과 자기 번민의 땃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할 때이다.

3.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전우적인 사건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날 보편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종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캘리포니아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닌가? 무법지대 되어가는 것 막을 책임가진 그리스도인들!

교회건물 실내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했다고 5만불 벌금 물게 된 캘리포니아 교회들!

북가주 산타클라라 도시의 North Valley Baptist Church(NVBC)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로부터 2번의 찬양이 포함된 실내 예배모임을 주도한 것을 이유로 처음엔 1만불의 벌금(2번 모임 벌금)을 내리는 통지를 받았으며, 예배 금지명령(cease and desist) 통지까지 함께 받았습니...

속 게인 뉴선 주시사의 교회를 닫으라는 첫 번째 명령에도 열심히 수긍했으며, 연속적으로 코비드를 핑계로 교회 예배에만 유별나게 정부의 규정이 자꾸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칙을 존중하고자 비대면 예배, 교회밖에서 예배 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두 번째 교회 예배부터 정지시키는 주정부의 이중 잣대를 사용한 규칙

에서 AB2943이나 ACR99을 Search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공적인 예배모임을 교회 안에서 가졌다고 비난을 하거나 예배모임을 갖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크리스천들끼리 서로 비난을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난할 때가

에 나를 체포한다면 - 지금 상황에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것을 알지만 - 그것(체포)이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기관이 교회기간에 벌금과 예배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서한에는 아래처럼 적혀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진정 미국의 헌법처럼 시민의 신앙의 자유와 시민들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에 대한 보호인지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중잣대!" 두 목사들과 법정의 결정은?



북가주에 위치한 North Valley Baptist Church

남가주 Thousand Oaks 도시에 위치한 Godspcak Calvary Chapel은 법정의 명령(교회모임을 갖지 말라는)을 무시하고 실내모임을 한 교회와 Rob McCoy 목사에게 총 3천불의 벌금을 내렸는데 한 번의 예배당 5백불씩 총 6번의 예배에 대한 벌금이요 역시 벌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가주의 한 교회는 모두 잘 아시는 John MacArthur(존 맥아더) 목사님이 담임이신 Grace Community Church이고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주정부의 불법명령에 대해 소송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세 교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진정 주정부의 법을 어겼는가?

먼저,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법을 잘 지키니다. 어떤 때는 너무 잘 지켜서 악법과 선한법의 분별을 잃고 지킬 때가 있어서 너무 아쉬울 때가 있을 정도로 법을 잘 지키니다. 따라서 이렇게 벌금을 받은 교회들은 예배모임을 모일 때도 최대한 마스크, 거리 지키기 등을 그 어느 곳보다 잘 지켰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둘째, 주정부의 민주당 소

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가장 높은 헌법에 의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이 공통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미국헌법을 교회들이 꺼내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주정부는 교회들에게 경고와 협력적인 통지들만 준 것이 아니라 벌금까지 내도록 명령내린 것입니다.

미국 헌법상 그거야말로 주정부가 비헌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상상을 초월하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Tvnex 뉴스 계속 따라오고 있으시다면 캘리포니아의 악법들이 그동안 통과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상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 AB2943, ACR99). 모르는 분은 Tvnex.org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이슈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도 또한 취해야 할 때입니다.

NVBC교회의 잭 트리버(Jack Trieber) 담임목사는 이 황당스럽고 비헌법적인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적 건강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건강이다. 우리가 같은 상태에 처하고 교회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이 가장 폭력과 마약 중독이 늘어나고 흡연도 늘어났으며,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없어야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당신들이 이번 주

남가주의 Godspcak Calvary Chapel은 법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8월 21일 총 6번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예배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Godspcak 교회의 법적 대리인인 Liberty Counsel의 창설자이며 회장인 Mat Staver는 "대규모 시위들은 (사실상 폭력적인 폭동들을 미화해서 시위라고 함) 장려하는 주지사가 반면에 모든 예배를 금하고, 집회와 예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교회에서 일반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한 주지사가 신앙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하고 있다. 종교 예배를 향해 이중잣대를 사용한 적대적이 이러한 비헌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덧붙였다.

그 외 존 맥아더 목사님 교회와 나머지 내용들은 Tvnex.org에 가서 더 읽실 수 있습니다.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장로교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때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평신도로서는 구분이 잘 안됩니다. 보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쉽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도 평신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종신에서 신복음 목사님께서 조직신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렇게 그 용어를 소논문에서 설명하셨습니다. 20세기 초반의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밀려오자 이에 대항해서 신앙을 보수하기 위해 생긴 운동이라면 복음주의(福音主義, Evangelicalism)는 17세기 이후 독일 루터교회의 '죽은 전통'에 불만을 품은 경건주의(敬虔主義)운동에서 파생된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독일교회에는 점점 신앙의 고경화 현상이 나타나 교리적 정통주의가 만연케 되자, 슈페너(P. Spener, 1635-1705)와 후랑케(Francke, 1663-1727)를 중심으로 종교적 정열과 내적생명을 되살리려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 독일교회에 커다란 각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는 생활이요 체험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경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들의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독일과 영국, 그리고 기타 유럽의 복음주의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복음적이란 용어는 복음에 기초하려는 모든 개신교 교회에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복음주의'란 말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도 적용되고 영국에서는 웨슬리와 감리교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완전영감설을 강조하고, 의식적 예배보다는 설교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해서는 절은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적'

## 복음주의-성경 권위와 완전영감설, 개혁주의-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

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개혁주의(Reformed Faith)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혁이란 말은 본래 16세기 로마 가톨릭교회의 오류와 폐단에 대항하여 일어난 교회들의 성경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입니다. 개혁주의는 신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사상체계입니다. 여기에는 신학과 정치, 사회, 과학, 예술 등에 대한 사상도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기본 되는 중심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사상(主權思想)입니다. 침례교가 중생의 신비, 루터교가 이신득구, 모라비안이 그리스도의 상처, 로마교회가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사상을 강조합니다. 롬11:36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입니다.

둘째는 미국 칼빈신학교의 클로스터 교수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오직 성경, 모든 성경(Sola Scriptura and Tota Scriptura)에서 찾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교관제도의 횡포를 버리고, 그 자체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던 교회 전통의 권위를 거절하였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모두가 교회생활과 개인생활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가라는데 가고 말씀이 서라는데 서는 최종적인 권위를 성경에 두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h3>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월-토)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말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주요모임장소)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젊은이 예배: 오후 7:30 영어권 (왕산-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머무는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말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주요모임장소)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밀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c.org / www.b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A)세움연합교회(현목사) 신앙상담: (월-금) 오전 9:45(월요일) 사역상담: 1. 영성사역, 2. 교육상담, 3. 영성상담, 4. 상담사역, 5. 영성사역, 6. 영성사역 Tel: (213)381-2202, 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움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회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646-9259 www.socallsam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cv.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토 나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핼(PIM)선교회, 교회</b>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네팔의 셰르파(SHERPA)

네팔의 셰르파(Sherpa)는 헬람부(Helambu) 셰르파의 한 종족이다. 보티아(Bhotia)의 하위 종족인 셰르파는 동쪽 네팔의 높은 계곡지역에 살고 있는 티베트계 열 민족의 종족이다. 셰르파라는 이름은 티베트의 "sharpa"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동쪽으로 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셰르파는 친절함과 관대함이 깊이 박힌 정이 있고 친근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셰르파족은 사가



르마타(Sagarmatha) 북쪽지역의 솔루쿰부(Solu-kumbu)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천명의 셰르파는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Kathmandu)와 다질링(Darjeeling) 시와 인도의 고지대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셰르파 촌락은 에베레스트(Everest) 기슭 주변에 있는 히말라야 지역의 남쪽 비탈에 위치해 있다. 셰르파족은 기술 있는 가이드와 짐꾼들이다. 1953년에 텐징 노르가이(Tenzing Norgay)라는 셰르파 등산가가 에드몬드 힐러리(Edmund Hillary)와 에베레스트 정상에

동행했을 때 셰르파 족은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 삶의 모습

셰르파 촌락은 몇몇 가족들로부터 100여개 이상의 가족들이 어느 곳이든 분포해 있다. 셰르파 가족 단위는 한 집에서 소유를 함께 나누는 핵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가족들은 적어도 2층이며, 2층은 살기 위한 방으로 1/4를 사용하며 1층은 가족우리와 저장고로서 사용한다. 막내아들이 결혼할 때 그는 농가와 절반의 밭을 상속받는다. 그는 또한 그의 부모님을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 장남은 유산으로 남아있는 밭을 받는다. 중간 아들은 "라마" 혹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는 것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영

예를 줄 수 있다.

과거에 결혼은 언제나 가족에 의해 중매결혼이 이루어졌다. 이 전통은 서구의 영향으로 바뀌어진 듯 보인다. 또한 이혼은 30%로 추정되며 빈번히 일어난다.

솔루쿰부(Solu-khumbu)지역에는 공립학교가 거의 없으며,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먼 거리를 걸어야만 한다. 정부에서 의무 3년 교육을 제정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정규적으로 갈 수가 없다. 셰르파 족 교육의 부재로 오직 29%의 문맹률 결과를 가져온다.

무역은 셰르파족을 위한 중요한 경제적 활동이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많은 의무들을 남겨둔 채 자주 몇 달씩 떠나는 오랜 기간의 무역원정을 떠난다. 셰르파족은 티베트 무역인들과 네팔의 저지대로부터 온 무

역인들 사이에서 중간상인으로 종종 활동한다. 중간상인의 일은 셰르파족에게 다른 고지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생활수준을 줄 수 있다.

관광사업은 셰르파족에게 수입의 근원이 되며 다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산악원정대들이 밤에 쉴 수 있는 집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요리사로, 짐꾼으로, 가이드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관광과 관련된 일들은 셰르파족 경제에서 점점 더 널리 행해지고 있다.

셰르파족의 언어는 티베트의 방언으로 다른 많은 네팔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 계열이다. 모든 셰르파 족은 네팔어를 구사하며, 네팔어가 공용어로 통용된다. 셰르파족이 문자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많은 셰르파족이 티

벳, 네팔, 때때로는 힌두와 영 어까지 읽고 쓸 줄 안다.

#### 신앙

종교는 셰르파족과 매우 강하게 결합돼 있다. 셰르파족은 일반적으로 정령숭배주의와 섞여진 티베트 불교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셰르파족이 하는 모든 일에 관계돼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어느 곳에서든 영혼이 있다고 본다. 셰르파족은 종교와 미신이 합해진 많은 예배의식을 행한다.

#### 필요로 하는 것들

오직 32,600명의 셰르파족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성경의 몇 부분들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됐지만, 기독교와 다른 복음제시 자료들은 없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한국VOM, 라오스에 성경 10만권 보내기로

한국 순교자의소리(VOM)는 캐나다 VOM, 미국 비전 비욘더스(Vision Beyond Borders) 등 기독교단체와 협력해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는 라오스에 신약성경 10만권을 보내기로 했다. 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라오스 지교회와 가정교회로부터 신약성경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경 배포를 결정했다. 한국 VOM에 따르면 1994년 400명에 불과하던 라오스 기독교인은 2020년 현재 25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이면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기독교인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현수 풀리 한국 VOM 대표는 "공산국가인 라오스 정부는 기독교를 미국의 종교로 여겨서 기독교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하는 등 압박한다"면서 "도착종교를 가진 지역 주민들도 마을에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라오스 정부의 통제로 일반 서점에선 성경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유일하게 인가한 라오 복음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통해 소량으로 구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의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대량으로 성경을 반입하다 스파이 혐의로 적발된 경우도 있어 이것도 어렵다. 한국 VOM 등은 10만권의 성경을 내년 5월까지 9개월간 시간차를 두고 개인과 단체를 통해 나눠서 보낼 예정이다.

풀리 대표는 "신약성경을 공급하기 위해 라오스 인근 국가에서 인쇄해 배송할 예정"이라며 "라오스 신자들이 이 신약성경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 CCC 새 총재에 스티브 셸러스 부총재

국제 기독교단체 대학생 선교회(CCC)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제3대 총재로 스티브 셸러스(사진) 현 수석부총재를 선임했다고 한국CCC가 9일 밝혔다.



셸러스 신임 총재의 직무는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1976년 CCC 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셸러스 신임 총재는 미국과 오세아니아 국제부총재를 거쳐 2005년부터 미국CCC 대표, 2018년부터 CCC 수석부총재로 사역해 왔다.

셸러스 총재는 "전 세계가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지금,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만나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전임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와 스티브 더글러스 박사의 발자취를 이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CCC는 1951년 빌 브라이트 박사와 보브 브라이트 여사에 의해 설립됐다. 전 세계 198개국에서 대학생 선교를 기반으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기독교단체다. 브라이트 박사에 이어 2001년부터 더글러스 박사가 2대 총재를 맡아 사역했다.

#### 미국 신천지, 로비회사 고용

미국의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관단체가 신천지에 대한 박해 사실을 미국 정부에 알리겠다고 현지 로비회사를 선임했다.



미 법무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사이트와 포린로비닷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시온교회'는 지난달 17일 현지 로비회사 리빙스턴 그룹과 6개월간 매달 8500달러를 지급하는 로비 선임 계약을 했다. 주요 계약 내용은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천지 집단에 대한 박해와 부당한 대우를 미국 관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리빙스턴 그룹은 이 같은 계약 내용을 담아 지난 3일 FARA에 외국대리인 등록을 마쳤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 기업은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때 이들의 관계, 활동 내용, 경비 등을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문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온교회는 자신들을 한국의 신천지와 연계된 곳으로 설명했으며 대표자는 이모씨로 돼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온교회는 포린로비닷컴에 보낸 성명서에서 신천지를 "새롭게 성장하는 교파로 주류 교회와 세속적 언론에 의해 잘못 전달돼 차별받는 먹잇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한국에서 신천지에 대한 박해가 심화하고 있으며, 신천지 구성원들은 혐오 발언 등 극단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교회의 일원인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 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의원 출신 정치인이 설립한 리빙스턴 그룹은 미 의회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와 단체를 위한 로비를 전문적으로 한다. 리빙스턴 그룹은 곧 미 관료들과 접촉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는 지난 3월에도 신홍종교연구센터, 국경없는인권회 등의 해외 기관과 접촉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신천지와 코로나19, 진실검증 백서'를 발간하는 등 한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해외에 유포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신도들의 내부결속을 이끌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사전 정비 작업으로 본다"면서 "이 교주 재판을 앞두고 핏박 프레임에 씌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도들을 결속시키는 데는 해외 활동과 상황을 국내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어성경번역 상징 인물' 이수정 사진 발견

구한말 기독교인이자 한국어 성경번역 선구자인 이수정(1842-1886)의 미공개 사진이 발견됐다. 2016년 옥성덕 미국 UCLA 한국기독교학 교수의 논문에 해당 사진이 실렸으나 일반에 공개된 건 처음이다. 박용규 중신대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는 13일 미국성서공회(ABS) 기관지 '바이블 소사



이어티 레코드(BSR) 1903년 12월호에 실린 이수정의 미공개 사진과 해당 사진이 실린 잡지 표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수정 사진 하단엔 '일본의 한국인 개종자, 신약성경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자'(A KOREAN CONVERT IN JAPAN, Translator of part of the New Testament into Korean)란 설명이 적혀 있다. 박 교수는 "한국인 개종자(KOREAN CONVERT)"는 이수정을 칭할 때 흔히 쓰던 표현"이라며 "BSR 1884년 3월호에 이수정의 시 '복음서의 조화'가 실렸을 때도 '한국인 개종자 이수정의 시'란 표현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이 등장하는 BSR 1903년 12월호 표지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어 성경번역에 공을 세운 WD 레이놀즈(한국명 이눌서)와 HG 언더우드(한국명 원두우) JD 게이(한국명 기일) GH 존스(한국명 조원시) 선교사가 모여 촬영한 것이다. '한국어 성경 번역자들'이란 제목의 이 사진에는 이들의 성경번역을 도운 문경호 김명준 정동명의 모습도 담겼다.

박 교수는 2017년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한 고서점에서 입수한 1867-1903년 37년치 BSR을 분석하다 이들 사진을 발견했다. 그는 "BSR은 이수정의 편지와 주기도문이 실린 매체로 '한국선교의 보고'와 같다"며 "ABS 기관지인 하지만, 미국 그리스도인에게 해외선교 동향과 성경보급 현황을 알려 온 대중적 성격의 매체"라고 평했다. 이어 "1903년은 원산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해다. 우리가 한글성경을 목마르게 필요로 했던 그해, ABS는 한글 성경번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특집호를 마련했다"며 "여기에 한글 성경번역에 있어 상징적 존재인 이수정을 대표적 인물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금껏 소개된 이수정의 자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수정의 사진이 새로 발견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수정은 1882년 수신사 수행원 자격으로 박영효 김옥균 민영익 등과 일본에 건너갔다. 일본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인 츠다센의 전도로 기독교를 접하고 이듬해 미국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4년간 일본에 머무르며 '마가복음서 언해' '현도한한신약전서' 등을 펴냈다. 미국교회가 한반도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할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조선의 마게도나인'(행16:9)으로 불린다.

#### 美 역사상 '총' 가장 많이 팔렸다

미국의 총기판매가 올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기 판매가 늘면서 총기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격화되는 정치적 갈등에 총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국민일보가 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NICS(국가범죄이력 즉시조회시스템) 조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를 시도한 건수가 2593만4334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324만1791건이다. 1998년 NICS가 도입된 이후 조회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로 2836만9750건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9월이나 10월 중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총기 판매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다.

NICS는 합법적 총기 구매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총기를 사려는 사람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범죄이력을 구매 직전에 검사받아야 한다. NICS는 흉악범죄 전과자, 불법 이민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등이 총기를 보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미국에는 전국 각지에서 팔리는 총기 판매량을 정확히 집계하는 자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자료가 FBI의 NICS다. 뉴욕타임스(NYT)는 NICS를 토대로 올해 최소 2000만개의 총기가 미국에서 팔렸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인근 버니지아주의 한 총기 판매점 직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총기가 매우 많이 팔린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총기 판매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성인 남녀의 총기 구매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취약한 여성과 노인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찾아왔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총기판매의 새로운 양상은 총기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미국 사격스포츠포럼은 올해 총기 구매자 중 약 40%가 최초 구매자라고 밝혔다. 총기에 익숙지 않은 최초 구매자가 늘면서 사격이나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총기규제단체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칙맨은 AP통신에 "총기 판매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면서 "전례 없는 총기 판매량 증가는 향후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선 D-50...흔들리는 백인 표심 '변수'

미국 대선이 14일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온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가 13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51%의 지지율을 얻으며 46%의 트럼프 대통령에 5%포인트 차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미국 유권자 1311명을 대상으로 지난 7-10일 이뤄졌다.

접전지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지난 8-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4개 접전지 위스콘신(48대 43)·미네소타(50대 41)·뉴햄프셔(45대 42)·네바다(46대 42)에서 모두 이기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격전지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이든 진영에 청신호다. 그러나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유권자의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백인 표심은 여전히 올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백인들 사이에서도 변화 조짐이 엿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들의 높은 지지는 확고부동하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는 전체 백인 중에서 54%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지지율은 54%로 조사됐다.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백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인들의 민주당 지지는 2016년 대선에 비해 6%포인트 늘었다. 그동안 부동층이었던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반감을 품고 바이든 지지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들고 나오면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흑인 시위에 대한 백인들의 거부감이 확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지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백인들의 지지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들의 높은 지지를 통해 재선을 노리고 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란 산업화를 통해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본논리 속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상품문화이다. 과거 대부분의 사회에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가 함께 공존했다. 예를 들자면,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연주회 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자들의 전유물이며, 민요와 민속놀이 등은 주로 서민들이 애호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사회 계급이 분명한 시대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대중문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을 지니게 되었다. 21세기 사회에 생겨난 많은 변화 중 하나이다. 현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pop 열풍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한류를 주도하는 연예인들은 전 세계에 많은 팬을 소유한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이 소속된 대형기획사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락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중문화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접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Netflix를 통해 어느 곳에서든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유행을 주도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수시로 접할 수 있다. 유명가수의 새 노래가 Youtube에 발표되면 곧 조회 수가 수억에 달하기도 한다. 예술, TV, 라디오, 신문, 영화, 광고, 출판, 스포츠, 게임 등 대중과 친숙한 문화의 종류가 다양하다.

거듭난 성도들도 대중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말은 흥수와 같이 쏟아지는 대중문화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아무리 적극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으려 해도 대중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굴레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나타난 수도사처럼 광야와 들을 찾아 나설 수 있을 때문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롬 12:1).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기본 태도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 핵심은 구별된 삶이다. 바로 지금이 이 명령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성과 폭력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소비자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대중문화의 위험성 때문이다. 시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문화가 더욱 선정적이고 잔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모든 대중문화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더욱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겨진 예술과 사고방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속적 대중문화와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을 현저히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동화되지 말라는 명령이다.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 본받게 된다는 것이다. 40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 아무쪼록 대중문화를 통해 받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와 기독교

간혹 근거 없이 세상의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여 무조건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자를 만나게 된다. 이는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문화일반에 대한 무지가 낳은 산물이다. 문화는 대중의 생활 양식이며 활동의 총체이다. 하나님께서도 대중문화를 피해서 무조건 귀 막고

더욱 개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문주의적 이상이 담겨진 진보적 사고에 입각하여 예술, 음악, 문학 등의 교육을 통해 더욱 인간답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화를 개인이 아닌 특정집단이 소유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이들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간이 문화변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세속적 대중문화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뜻을 문화를 조성하라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 계속하여 직접 세상의 일을 다스리시는 섭리사역을 쉬지 않으셨다. 문화는 세상의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세상을 돌볼 것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큰 문제가 생겼다. 인간의 전적타락이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인간이 문화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목적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문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교회와 문화

초기 한국 선교사들은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의 산물인 고전적 엄숙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이었다. 자연스레 경건한 신앙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그럼에도 자연스레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서양문화가 소개되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의료시설과 고아원시설을 갖추어놓고 궁핍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또한 고아원 사역, 서양음악 교육, 그리고 한글 발공 등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지녔던 문화를 한국 땅에 이식시키려는 목적 때문은 아니었다. 복음을 받아들인 조신인들의 보다 높은 질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선한 의도로 인해 가능하였다.

아무쪼록 선교사들은 자연스레 서양 문화를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혀 생소하였던 십자가 복음과 친숙해질 수 있던 것처럼, 성도들은 선교사로부터 소개받은 서구문화를 넓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였다. 도덕주의에 익숙한 선교사들은 도박, 아편, 음주, 흡연, 축첩 등이 기독교 윤리정신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이를 금지시켰다. 그 당시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 문화를 역행하는 결단을 요구하였다. 미숙한 한국교회가 무비판적으로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와 공산주의 치하를 지나면서 서서히 개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식을 지닌 자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지닌 자들이 많았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국가적 어려움에 동참하며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격려했다. 그 당시 교회가 사회를 향해 끼친 영향력은 정치적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문화적 흥미를 제공하는 장소였다. 교회에 가면 재미있는 서양 노래를 배우고 천로역정 등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무료로 칼라영화를 시청할 수 있었으며, 간혹 칼라영화를 상영하면 남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매당이 가득 찼다. 상품으로 받은 미제 연필은 친구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다. 공짜 선물을 받으려고 일 년에 한두 번만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도 허다했다.

(9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0)

교회가 가르친다.(7)-대중문화의 횡포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속지해야 할 것이 있다. 문화와 종교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문화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역사의 한 부분에 드러날 뿐이다. 인간에게는 문화보다 종교가 훨씬 본질적이다. 종교가 문화에 예측될 수 없으며 도리어 종교를 토대로 문화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이다.

문화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이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문화를 포함한 모든 세속문화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인 인간의 자율적 행동으로 생겨난 산물이 되었다. 약한 영은 지속적으로 세속문화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전하는 도구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거부 판단능력 필수  
기독교문화 창달을 현대교회의 신앙적 사역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눈 감고 살라고 주문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즉, 성도는 반드시 대중문화 가운데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에 대한 판단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토록 거세게 밀어닥치는 세속적 대중문화의 힘을 저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1).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대중문화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문화는 결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집단의 소유가 아니다.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17,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문화가 인간 본성의 순화과정이며

원시 종교는 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종교의식이 중심된 문화를 중시했다. 그들에게 문화는 인간의 산물이었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종교이다. 사회가 처한 상황이 바뀌고 따라서 문화와 풍습이 변화여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고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다. 문화의 영향력에 끌려가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화에 대한 성도의 대응방법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성경과 문화

성경은 우리가 속지해야 할 문화에 분명한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중심된 문화명령이 참새기 1장 26-28절에 기록되어 있다. 문화는 인간이 구상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로 사용하도록 유희하고 있다.

타락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향하도록 하였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런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구국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다. 십자가 복음의 초점은 영혼구원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새로운 관계에서 문화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이 포함된다. 영생의 약속을 받은 뒤, 타락한 문화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뤄지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선교와 전도는 문화적 접촉을 중시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요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문화 역시 회복되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복음이 확장되는 현장마다 문화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부패된 개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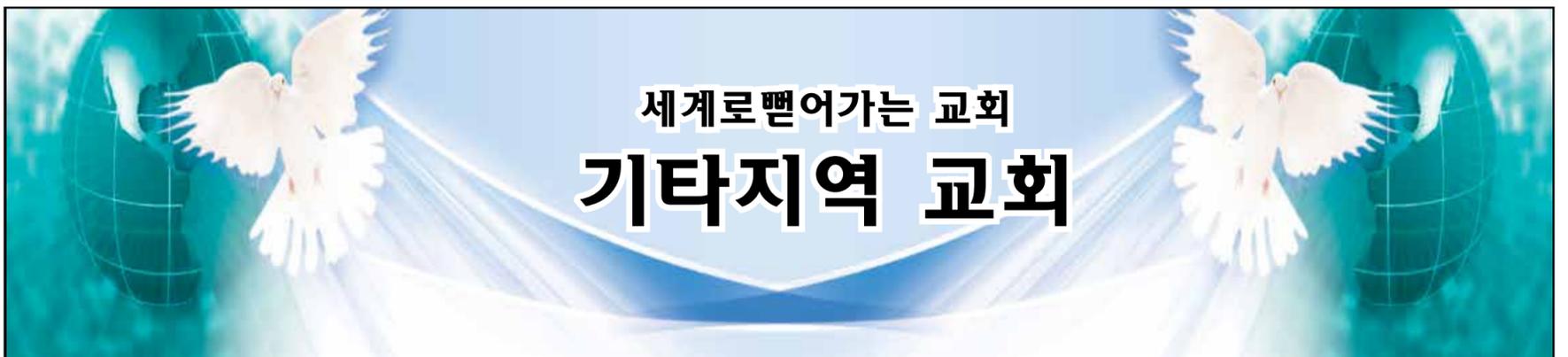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ori, Mongo, Bexkay, Benel, Boston, Salt, Sial, Anidok, Alkansa, Anger, Elpas, Yongsang, Killin, Winsten, Juseu, Takoma, Philadelphia, and Mijuk.

# 리더십 코멘터리 (11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다섯 개의 총알이 우리를 피해 갔다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었다

미국대선이 11월 3일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인종문제로 인한 폭동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버펄대학의 매튜 베일리스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총 6번의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조류 독감, 그리고 돼지 독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 총알을 우리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여섯 번째 총알에 맞고 말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팬데믹(pandemic)은 인류의 영원한 친구로 엔데믹이 되어 끊임없는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 엔데믹(endemic)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권에

코로나 백신과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한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다. 이걸 믿고 성경 충만한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선각자가 되어 선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위기 상황은 오래간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영적리더들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위기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교회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서도 선각자

야 했는데 지금까지 부족함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청년들과 소통 창구인 미디어 분야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목회와 선교사역에 미디어 활용을 통한 비전이 생겼다. 이런 뉴미디어의 발전은 단순히 소통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전략을 통한 목회와 선교사역의 개혁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을 때 복음 전파에 위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게 된다. 중세 당시 뉴미디어였던 인쇄술을 놓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정도로 뉴미디어는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전에 가지 힘들었던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디에 있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목회와 선교사역의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오프라인상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페이스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예배 초청, 소셜미디어 광고 기능을 통한 홍보, 유튜브를 통한 복음 메시지 전파가 미디어를 활용한 복음전파 방법에 속한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 젊은 세대와 소통 창구 빠르게 발전, 복음전파에도 긍정적 영향 희생적 사랑의 실천 있을 때 코로나19 거리두기 넘어설 수 있어

서 그간 주로 풍토병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으나 코로나19 등장 이후 주기적 유행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영적리더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

교회가 고위험군으로 확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는 말이 생겼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완벽한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드 코로나, 다시 말해 코로나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영적리더들도 리더십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확산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가 되어 선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위기 때 리더가 등장한다. 바로 당신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이다.

코로나가 목회와 선교사역 발전의 전환점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친구·이웃과의 관계, 일과 직업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을 비롯한 생활 패턴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져온 자본주의 경제원리의 변화 및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목회와 선교사역의 위기로 여기며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강제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와의 소통 창구가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젊은 세대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미디어매체이다. 사실 청년들과 마주하는 사역현장에선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도구 이용에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어

선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영성 생활 강화를 위한 온라인 도구 활용법으로 스마트폰 성경읽기나 개인묵상 앱, 온라인 그룹 성경공부, SNS를 통해 전개되는 기도운동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개혁의 시작이요 주님이 주신 역사적 기회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큰 결실이 되어 다가온다. 거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가 목회와 선교사역 현장에서의 당면한 과제이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으로 거리를 뛰어넘으셨다.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희생적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거리를 넘어설 수 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거리를 좁힌 것도 예수께서 낮아지셔서 사랑의 대화를 해주셨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과의 문화적·종교적·혈통적 거리를 넘어 사랑의 편지를 썼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 딸 생일

곧 생일이 돌아오는 딸이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다. 여름 내내 집에서 일하면서 주어진 휴가도 안 쓴 채 가을학기를 맞은 참이어서 나에게도 반가운 제안이었다. 가까운 산타바바라로 가서 하루 자고오기로 했다. 코비드19 때문에 어디 간다는 것도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라서 오랜만의 짧은 여행이었다. 점심으로 먹을 김밥을 싸서 마차 소풍가는 마음으로 LA 도심에 빠져 나왔다. 산타바바라에 도착해서 집을 풀고 길어간 바다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산물로 인해서 하늘이 맑지 않았다. 어느 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대었을 시내도 코비드19로 풍경이 바뀌어 있었다. 비즈니스를 닫은 곳들이 눈에 띄었다. 찾길을 막고 길에 테이블을 차려 놓은 야외식당에는 그래도 쓸쓸하지 않을 만큼의 사람들이 군데군데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오랜만에 웨이터의 서비스를 받으며 생일축하 저녁을 먹었다.

아무래도 바닷가여서 그랬는지 밤이 되니 좀 추운 것 같아서 히터를 키고 자는 바람에 공기가 답답해서 잠을 설치었다. 아침에 부다가 생선을 파는 집에 전화를 해보니 마침 생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부지런히 걸어 가서 생계와 홍합을 사왔다. 간단한 아침식사 후 근처의 작은 farmers market으로 향했다. 우연히 걷게 된 farmers market 동네에 위치한 바다 위쪽의 산책로가 너무 좋았다. 하나님께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청나게 큰 저택들이 자리 잡은 동네였는데 길가에 피어있는 다양한 색의 들꽃들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오랜 만에 일상을 벗어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자기 생일인데 엄마를 생각해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 딸이 고맙웠다. 생각해보니 생계를 좋아하는 것도 엄마이고 farmers market을 좋아하는 것도 엄마인데 딸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는 철 없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딸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

딸은 나이가 들면서 엄마에게 친구가 된다고 한다. 우리 딸도 그런 것 같다. 때로는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늘 엄마를 챙긴다. 학교 일로 답답하거나 짜증이 날 때도 내가 속마음을 털어 놓는 사람은 딸이다. 어떨 때는 나를 위로해주지만 때로는 내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딸이 고맙다. 여덟 살 때 아빠를 잃은 아픔이 딸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돌봄의 바탕을 갖게 한 것 같아서 안 쓰렵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다. 어려운 시간이 성숙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이후 집을 떠나 늦게 다시 전공을 바꾸는 바람에 서른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마친 딸은 바로 다시 돌아왔다. 감사하게도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같이 지내게 된 것이 5년째다. 나는 다시 딸 도우미 역할을 지원해서 바쁘게 출근하는 딸을 위해서 간단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싸주고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요즘 같이 집에서 일을 해야 하고 사회적 교류가 없는 때에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딸아이는 성격이 활달하고 명랑해서 친구들은 많은데 아직도 맞는 짝을 못 찾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매년 딸 생일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엄마 마음을 함께 가정을 이룰 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하는데 그 바람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우리 딸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므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엄마 마음은 쉽게 조조해진다. 어쩌면 동료교수가 말한 대로 엄마와 딸이 상호존중적인 관계에서 딸이 더 사람 만나는 일에 무심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딸이 엄마에게 아무리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어디엔가 숨어 있는 청년이 나타나서 내년 생일에는 딸이 엄마가 아닌 남자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b>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884, www.k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Ea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양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9840, 98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 모 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b>베이사이드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선교인턴십생애배: 매주 토요일 오전 9: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00 주일 2부예배: 오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중.초.고등부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현지교회</b> 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DIY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활동들이 제한을 받으며 살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팬데믹을 맞이하였을 때 큰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서 죽는 것은 아닌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 잡혔습니다. 모든 활동들을 멈추고 집에 머물라는 행정명령 앞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 생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는 이런 공포,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이 현실이 되었고,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처한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 개발이 완성되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으로

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팬데믹 이후 6개월 지난 지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삶의 방식들과 활동들에 적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활동 중 하나가 DIY(Do-It-Yourself)입니다.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삶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자 스스로 집을 수리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스스로 집을 가꾸는 일들을 합니다. 팬데믹을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재료들을 파는 홈디포나 로우스는 매출이 증가하였고,

재봉틀의 판매가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DIY의 신앙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활동 중 하나가 DIY(Do-It-Yourself)입니다. 본인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삶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자 스스로 집을 수리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보고, 스스로 집을 가꾸는 일들을 합니다. 팬데믹을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재료들을 파는 홈디포나 로우스는 매출이 증가하였고,

을 보여주고 있음을 온라인에 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들과 중대교회들이 드리는 생중계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수의 비율을 보면 30-35%에 불과합니다. 팬데믹은 내 자신이 DIY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고후13:5).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DIY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DIY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마지막 시간이 진행됐다

‘시대적 과제로서 교회론의 재정립’ 주제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감사 김병훈 교수

KAPC 총회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 마지막 시간이 8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줌 미팅을 통해 개최됐다. 김병훈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교수)를 강사로 ‘시대적 과제로서 교회론의 재정립’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김 교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은 교회로 나뉘었다”라며 “보편적 교회는 선택받은 자로 보이는 교회이며 참된 신앙인으로 이뤄진다. 보이는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구원이 없다. 보이는 교회는 목회현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훈 교수는 “제도로서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명령, 규례들을 수행하도록 세우셨다. 기관으로서 교회는 책임이 있으며 복음교회가 잘 전달되도록 생명을 대해야 한다. 세례와 성찬이 잘 수행되도록 해야 하며 교회다움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성숙하고 건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을 돕고 격려하고 교회바깥까지 봉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비드 시대 공적예배에 대해 “예배가 흔들려버렸다”며 “모이지 못해 텅 빈 예배

당에서 영상으로 예배인도를 예배로 볼 수 있나? 예배영상 녹화해서 보는 거 어떨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환경과 신조가 주는 기준 하에서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첫째, 공적예배를 주일 외에 드리지 않게 한다. 스둘째, 공적 예배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첫째, 전염병 이유로 공적예배를 폐하면 안된다. 이는 공적예배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다. 스둘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셋째, 전염병 상황에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예배 등 비대면 예배를 공적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공적예배는 아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 뵈고 예배해야 한다”며 “온라인예배는 코비드19로 각 처소에서 드릴 때 불안정하지만 상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대면에

배는 당회의 공적권위에 의해 현장예배 원리와 질서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공적예배로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예배가 불가능한 경우 목회자가 예배기원부터 축복의 선언까지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가정이 예배문을 읽어가며 공적형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는 세례는 가능하지만 성찬은 유예하는 것이 좋으며 “세례는 전체회중이 모이지 않아도 수세자가 있으면 집례자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성찬은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을 나눠 모여 성찬을 한다면 공동체가 모이는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모이는 현장예배가 줄어들면 성도의 교제는 느슨해진다. 방법을 찾아 실천적 능동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줌미팅 등을 통해 더 많은 모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 맞춤형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실천적 측면은 구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병훈 교수는 “코비드19 시대는 낙심의 때가 아니다. 사역자들이 신실하게 수고하면 된다.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닌 교회다움이 계속 드러날 수 있다. 목회자 수고가 더 절실하다. 집단적 형태가 개별적 목회로 전환됐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반응을 보실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여 수고할 때”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커뮤니티교회 실내예배 중단 LA수퍼리어법원, LA카운티 제기 가처분신청 승인

LA수퍼리어법원은 9월 10일 그리스커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의 실내 예배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교회 측은 실내예배를 두고 법원은 “공공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결했다. 미셸 베로프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보건국의 명령이 공공 안전 및 건강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실내 예배 제한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베로프 판사는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명령과 함께 교회에 야외예배로 전환 시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지시하라고 명령했다. 또 교회는 보건국령 공지와 지침준수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건국 직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로프 판사는 “보건국 명령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에 열린 심리에서 교회 측 찰스 리만드리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감염률은 교회의 실내 예배가 허용된 다른 주들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은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시위로 인한 것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때문이 아

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LA카운티는 관련 가처분 신청을 4번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LA카운티는 그리스커뮤니티교회와 43년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지, 회중에게 30일 안에 공간을 비우도록 했다. LA카운티의 공공사업부는 8월 28일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 LA 홍수수정규제 해지 의사를 공시하고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계약해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10월 1일까지 주차장을 비우지 않으면 그리스커뮤니티 교회의 사적 재산을 법에 의해 강제로 치우게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리스커뮤니티교회는 1975년부터 주차장을 임대해 왔으며 매달 8,301달러를 카운티에 납부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과 행사준비 직원 기념촬영하고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온라인 갈라 13만불 모금

한인가정상담소가 지난 10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 37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에 약 15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호프 버추얼 갈라(Hope Virtual Gala)’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기부금 후원과 라이브 옥션(Live Auction) 등을 통해 약 13만 달러를 모금.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행사는 코메디언 PK가 진행을 맡았으며, 헬렌 홍, 탤런트 신애라, 가수 브라이언, 메튜 모이 등이 축하영상을 보냈으며 특히 가수 알리와 제임스 리가 직접 노래영상을 보내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염 소장대행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7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본 기금모금으로 주가버 지원 및 필수품 구입 비용 등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북클럽이 줌미팅으로 열렸다

키르케고르의 ‘신앙의 개념’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 북클럽, 강사 박성민 박사

아주사퍼시픽대 한인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 주최 북클럽 첫 번째 모임이 8일 오후 8시 줌 미팅을 통해 열렸다. 이번 북클럽은 키르케고르의 ‘신앙의 개념’을 읽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성민 박사(아주사퍼시픽대 교수는 서론과 1장 ‘믿음은 평생 과업이다’의 강의를 통해 ‘키르케

고르의 특징은 작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글을 쓴 것’이라며 “그는 가명을 사용했으며 실제로 영감을 주는 것은 타인이 내일장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썼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모든 사람은 3단계 삶을 살고 있다. 첫째 본능이 지배

하는 동물적 단계 둘째, 이성이 지배하는 윤리적 단계 셋째, 신앙 믿음이 지배하는 종교적 단계’라 말하고 “실존주의의 아버지인 키르케고르는 글을 쓴 것이 배우기 위해서라고 한다. 종교적 단계에서 초월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 나를 세우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키르케고르의 삶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실존이다. 실존은 인간이 존재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 떨어졌다. 그것이 실존 죄의 모습이다. 그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가서 실존이 나아진다. 실존은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는 해답은 믿음밖에 없다. 성육신한 예수그리스도”라고 말했다. 한편 북클럽은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열린다. (박준호 기자)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기독교 문화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후 성공적인 경제개발로 인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문화와 한국교회의 관계 사이에 자명한 현상이 드러났다.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축소되면서, 사회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대중문화가 극도로 발전된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문화적 기대감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세상 문화는 교회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대중문화는 엄청난 힘을 지닌 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교회와 초창기부터 비판 없이 서구문화를 수용하는데 급급하였다는 것이다. 서양문화 자체가 부정적 기능을 하였다 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줄곧 신앙과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였다. 성도들은 매일 경험하는 문화를 어떠한 기준과 자세로 대할 것인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알아서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때에

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세속문화가 다양해지고 거센 힘을 지니게 되면서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다.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수 없다면 세속적 대중문화의 횡포가 주는 영적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재확인해야 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독교문화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문화와 기독교문화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넓혀가도록 해야 한다. 각 성도들이 역시 문화소비자의 입장에서 서서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서 기독교문화에 종사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만한 문화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대교회가 다음 세대에겐 건전한 문화풍토를 남겨야 하는 숙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기독교문화 창달을 현대교회의 신앙적 사역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시론

(3면에서 계속) 대부분 기록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떠나기 전에, 어디어디에 도착해서... 일어나고 있다. “내가 곧 길(I am the Way)”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남성보컬 그룹 god는 “길을 알 수 없다”고 “정말

이 길이 나의 길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비해, 복음서의 GOD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자신의 길되심과 그 길과 동행해 도착하면 만나게 될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자도 지금 우리가 가는 팬데믹 길의 여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사회학자도 이 상황의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덮어올지 예측하지 못하고, 신경정신과 닥터도 어떻게 정신력을 다져나갈 수 있는지 인도해주지 못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상의 힘에 흔들려온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되심과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석류가 붉게 익으면 계절이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하나? 석류열매는 벌써 저토록 붉어졌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했는가. 시론(時論)의 글도 이 시대의 방향과 행함을 논(

論)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크리스천신문의 시론은 그나마 믿을 구석이 있다. 말씀이라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의 논리가 시시하다 말해도 굳이 그들과 뒤엉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다. 이미 석류 붉어지듯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시대가 되었고, 지금 인류가 의지할 유일한 길은 여전히 ‘그 말씀’뿐이기 때문이다.

# 교계 기사판

## 뉴욕장로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 설립 50주년 기념예배가 9월 20일(주일) 오전 10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문의: (718)706-0100

## 코로나 블루 강연회

한인가정상담소(소장대행 캐서린 엄)와 LA 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이 진행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위한 마음건강 챙기기(부제: 관촬야호 함께 극복해요) 온라인 강연회가 9월 23일(수) 오전 10시 열린다.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되며 요청할 경우 직접 심리상담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규모 서포트 그룹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는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매니저. 강연 신청은 <https://tinyurl.com/coronablue>에서 할 수 있으며, 한인가정상담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KAFSCLA>)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213)235-4848, [mlee@kfamla.org](mailto:mlee@kfamla.org) 카톡 kfamla

## 씨존 제96기 스마트폰 화상 무료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Christian Zone·대표 문석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96기 스마트폰 무료강좌가 9월 24일(목)부터 10월 22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9시까지 '스마트폰 생활화'란 주제로 줌(Zoom) 화상 강의를 통해 열린다. 강사는 문석진 목사며 강의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일반인 등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강의 내용은 △아마존(Amazon) 물건 구입 △유튜브(YouTube)의 모든 것 △줌(Zoom) 사용법 △유익한 카톡(kakaotalk) 꿀팁(중급) △스마트폰 필수 꿀팁(중급) 등이다. 강의는 안드로이드폰 삼성 갤럭시로 하되 아이폰 소지자도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는 50달러이고 선택 수강이 가능하다. 선택수강은 1회당 10달러.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는 등록비 무료. 등록비 전액은 뉴욕기독교방송(CBSN) 선교헌금으로 사용된다. ▲문의: (718)414-4848, [cbssny@gmail.com](mailto:cbssny@gmail.com)

## 장학생 모집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제14회 사랑장학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고등학생과 박사과정은 제외)이며 신청서 접수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sarang.com/sarang\\_focus/1500/?lan=ko](http://www.sarang.com/sarang_focus/1500/?lan=ko))의 배너를 클릭해서 신청하면 된다. 장학생은 100명 이상 150명 이하를 모집하게 되며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신청마감일은 10월 14일이며 11월 21일에 선발결과를 발표한다. 장학금 수여는 12월중에 하게 된다. ▲문의: [kdsf.sarang@gmail.com](mailto:kdsf.sarang@gmail.com)

## 은혜한인교회 임직식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임직식이 9월 26일(토) 오후 6시 교회본당에서 열렸다. ▲문의: (714)720-4220

##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아웃도어 및 현장예배 실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는 20일(주일) 1부 예배를 주차장 아웃도어 예배로 모이며 2, 3부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다. 그리고 27일(주일) 예배부터는 교회예배당을 재개장하여 1부는 주차장 예배로 2, 3부는 100명 이내 현장예배로 드리게 된다. ▲문의: (714)899-9191

## 나침반교회 대면예배 재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20일(주일) 예배부터 대면예배로 드리게 된다. 시간은 1부(오전 8시)와 2부(오전 11시)이며 교회 입장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된다. ▲문의: (562)691-0691

## 캘리포니아 바이블컴퍼런스

캘리포니아 바이블컴퍼런스가 GMIT(Global Media & IT)가 주최로 유튜브 라이브로 열린다. 일정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박광철 목사(Salt House선교회)가 강사로 나서 히브리어를 강의하며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명기를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강사로 나서 강의한다. ▲문의: (310)702-2688

# 뉴욕빌라델비아교회 김혜천 목사 별세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 김혜천 목사(사진)가 9월 10일 오전 10시 15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김혜천 목사는 지난 1981년 개척한 빌라델비아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 전임 담임목사가 소천 받고 1993년부터 2대 담임을 맡아 사역해왔다.



고 김혜천 목사는 5년 3개월여 동안 암으로 투병했지만 강단을 떠나지 않았으며, 동부개혁신학교 학감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고 김혜천 목사는 뉴욕대학교(NYU)와 아이오와대학교(Iowa University)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동부개혁신학교와 뉴브리튼스위, 고든콘웰신학교 등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유가족으로는 장

화방 사모와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장례는 교회가 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으로 치러졌다. 발인예배는 12일 오전 10시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에서 드려졌으며, 장지는 파인론 공원묘지. (유원정 기자)

# 4개 노회 대면으로, 1개 노회는 화상으로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일원 5개 노회 정기노회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5월에 예정된 정기총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열었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가을 정기노회 철을 맞아 현장 대면 정기노회를 진행 중이다. 뉴욕일원 5개 노회 중 4개 노회(뉴욕노회-15일, 뉴욕서노회-8일, 뉴욕남노회-8일, 뉴욕동노회-22일)는 대면으로, 1개 노회(가든노회-15일)만 비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 뉴욕노회

뉴욕노회(노회장 김성국 목사) 87회 정기노회가 9월 15일 오전 10시30분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대 목사, 성경봉독 박병섭 목사, 설교 김성국 목사, 성찬예식 집례 이종원 목사, 축도 문종은 목사, 광고 이윤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이 때를 위함”(에 4:13-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결심을 잘 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본문의 왕비 예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모든 신학사상과 또 팬데믹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때에 규례를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는 길로 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욕노회로 부르신 뜻을 알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이 모든 순교자들의 가슴에 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뉴욕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 엄갑홍, 정철호 씨 장로고시 허락청원 △오인수 목사 전도목사 허락청원 △뉴욕선교로교회 김경수 목사 편목고시 허락청원 △주비전교회(이규분 목사) 현종영 씨 목사고시 허락청원 △뉴욕빌라델비아교회 이재환 씨 목사고시 허락청원을 보고했으며 △뉴욕빌라델비아교회 김혜천 목사 별세로 임시당회장에 이영상 목사(뉴욕산정현교회)를 파송했다.

### 뉴욕서노회

뉴욕서노회(노회장 박종윤 목사) 87회 정기노회가 9월 8일 오전 9시 뉴욕백민교회(임일송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노회장 박종윤 목사의 인도, 이종주 목사의 기도, 강기봉 목사의 설교, 성찬예식 집례 박정식 목사, 축도 임일송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진 회부에서 △뉴욕천성장로교회 이승원 목사 시무목사 사임 청원 △뉴욕천성장로교회 신두현 목사의 이승원 원로목사 추대 청원 △브스톤한인연합교회 폐쇄 및 고 신인동 목사 행정제명 청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교회(성호영 목사) 교회이전 청원 △우리아랑의교회(박종윤 목사) 교회이전 청원 △박정식 목사의 은혜안약교회 폐쇄 청원과 뉴욕그리스도안약교회 노회가입 청원 등을 다뤘다.

서노회는 30개 교회, 52명의 목사회원이 소속해 있다.

###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노회장 조성희 목사) 제19회 정기노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남노회 정기노회는 특별한 안건은 없었지만 개회예배는 부흥성회라 할만큼 간절하고 뜨거웠다.

개회예배는 조덕남 목사 인도로 기도 이재택 목사, 설교 조성희 목사, 성찬예식 집례 권영국 목사, 성찬예식 기도 전현수 목사, 축도 김재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노회장 조성희 목사는 “욥의 고난과 레벨업”(욥1: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신 것처럼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고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할렐루야 2020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부흥을 기대한다

## 할렐루야 2020뉴욕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

할렐루야 2020 뉴옥복음화대회 3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9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로써 뉴욕교협 최대 연례행사인 할렐루야대회의 공식적인 준비기도회는 끝났으며 대회는 18일(금)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총무 이창중 목사 인도로 기도 임영건 목사(지역활성화위원장),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회계), 설교 최창섭 목사(증경회장), 합심(통성)기도 김신영 목사(2020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주강사와 순서자들 위해) 권캐더린 목사(준비위원장-홍보, 동원, 안내, 재정, 안전, 차량과기를 위해) 김준현 목사(뉴욕교계와 차세대를 위

해), 축도 문석호 목사(부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예벤에셀선교회 담임)는 “큰 부흥을 주소서”(대하7: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흥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며 삶의 난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며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교회와 지도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어떤 상황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신학교 2020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목숨 걸 사명을 발견했는가?”

## 동부개혁신학교 2020년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지난 9월 8일부터 사흘간 개강부흥회를 시작으로 2020년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목숨 걸 사명을 발견했는가?”란 주제로 진행된 부흥회 첫날 강사 김성국 목사는 “우리는 힘쓰리라”(행6: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명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첫째 말씀과 기도, 둘째 목회철학, 셋째 사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직과 충성, 도전의식을 갖고 제자훈련과 복음전파, 다음세대에게 예배에 대한 사명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날 부흥회는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정기대 목사(총동문회장), 성경봉독 문병수 학우, 장학증서 교환

수여, 신입생 환영 및 기도, 장학금 수여, 말씀선포, 봉헌기도, 광고 학감 허윤준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 부흥회는 학생처장 강기봉 목사 인도로 이용호 목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충성”(마25:2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으며 마지막 날은 교무처장 허윤준 목사 인도로 이원호 목사가 “기독교 영성훈련의 의미”(행6:3-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동부개혁신학교는 코로나팬데믹으로 지난 봄학기 남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마쳤으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수업을 병행한다. (유원정 기자)

서도 기도하며 생명 바쳐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경과보고는 김경렬 목사 개회기도 후 양민석 목사의 인사, 총무 이창중 목사와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이창중 목사는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할렐루야대회 장소인 프라미스교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 300명 예약(온라인 생방송 병행), 발열체크, 개인별 싸인, 마스크 착용, 6피트

거리유지, 손세독 등 철저한 방역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희복 목사는 40여 교회와 15개 식당에서 후원금이 있었지만 예산 5만 달러 절반밖에 모금되지 못했다며 회원교회들의 후원을 당부하고 홍보영상(4분) 배부도 알렸다.

한편 청소년대회는 9월 25일과 26일 오후 7시 뉴욕주성교회(담임 황 목사)에서 열린다. 그러나 현장참석(32명제한)보다는 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 LA카운티 SAFEPASS 파트너십 시작

LA카운티지역의 개인에게 접촉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 SafePass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10일 LA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캐더린 버거 LA 감독관 카운티 공중보건국 이사바바 라퍼퍼 박사, 에릭 가제티 LA시장,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 테리 토비 패시디 시장 등이 참석했다.

SafePass는 사용자가 COVID-19에 대한 자신의 증상을 직접 보고하고 LA카운티 공중보건국으로부터 직접 알림 및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익명, 비공개, 암호화되며 Citizen에 의해 30일 후에 삭제된다. 담당자들은 주민들이 LA카운티의 천만 주민을 위해 COVID-19 추적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권장했다.

Citizen SafePass 모바일 앱은 7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테스트를 거친 후 최근 미국 전역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afePass는 Bluetooth 기술과 익명화된 데이터를 사용해 다른 사용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내용을 추적하고 잠재적인 노출을 경고한다. 접촉 후 COVID-19 양성검사 결과를 받은 다른 사용자와 의미 있는 접촉이 있는 사용자는 검사를 하라는 알림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vid19.lacounty.gov/testing/> 또는 [coronavirus.lacity.org/testing/](https://coronavirus.lacity.org/testing/)을 방문하면 된다. (기사제공: LA정신건강국)

#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9)

##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役割)과 공헌(貢獻), 특히 “청교도들을 미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계선교(世界宣教)를 위한 것이다.” 즉, 선교적(宣教的) 목회를 프렐링후이젠은 주장(主張)했다. 그는 핏필드나 에드워즈처럼 성령의 조명(照明)과 내주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프렐링후이젠의 부흥(復興) 사역에 동참(同參)하기 시작했다. 장로교회, 회중 교회, 네덜란드 개혁과 교회가 교단(敎團)이나 교파(敎派)를 초월(超越)하여 동역하였다.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을 통한 청교도 대각성 부흥운동은 수십만 명이 회심 체험을 하였고,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말처럼 뉴잉글랜드에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가 임한 것 같은 찬만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네덜란드 개혁과 개신교도들은 뉴저지의 라리탄(Raritan) 강변을 개척하면서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1720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성경 말씀에 충실(忠實)하고 선교 열이 있는 프렐링후이젠 목사를 뉴저지에 네덜란드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이후 신대륙의 화두(話頭)는 독립전쟁(獨立戰爭)에 관한 것이었는데 찰스 조운시(Charles Chauncy)와 조나단 메이휴(Jonatan Mayhew)와 같은 진보주의(Progressivism)자들은 미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에 참여(參與)할 것을 주장한 반면, 1758년 에드워즈가 죽은 뒤 그를 이어 미국 청교도를 이끌어오던 보수주의(保守主義)자들은 소극적(消極的) 입장을 취하였다.

프렐링후이젠 목사는 신앙을 머리(頭)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접(迎接)한 뒤 뛰어난 설교가였고, 삶 속에서 경건한 신앙을 실천(實踐)이 있는 자였다. 그는 신학적으로 독일경건주의에도 깊은 조예(造詣)가 있다. 그는 경건주의의 열정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윤리적 생활강령(綱領)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깊은 체험(體驗)을 해보지 못한 뉴저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신앙의

그 결과 독립전쟁 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진보주의자 편에 가담(加擔)하였고,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는 삼위일체(三位一體) 교리를 부정(否定)하는 유니테리언(Unitarian)교회로 문패(門牌)를 갈아 달면서 미국 청교도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한 청교도 신앙회복 대각성운동 이후 약 280년 동안 미국의 청교도들은 중부지역 복음주의(福音主義) 백인(白人)들을 중심으로 한 바이블 벨트(Bible Belt)에 참여 할 수 없다는 폭탄 같은 선언(宣言)도 감행했다. 신자(信者)의 생활은 종교적 의무(義務)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을 경배(敬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는 급진적(急進的)으로 부흥을 맞보며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한 청교도 신앙회복 대각성운동 이후 약 280년 동안 미국의 청교도들은 중부지역 복음주의(福音主義) 백인(白人)들을 중심으로 한 바이블 벨트(Bible Belt)에 참여 할 수 없다는 폭탄 같은 선언(宣言)도 감행했다. 신자(信者)의 생활은 종교적 의무(義務)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을 경배(敬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는 급진적(急進的)으로 부흥을 맞보며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현재,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로 말미암아 많이 희석(稀釋), 세속화(世俗化) 되었지만 아직도 청교도(淸教徒, Puritans) 정신은 미국(United States) 국민 전체(全體)의 문화와 전통(傳統)으로 표출(表出)되며 자리하고 있다.

kimjoyh@hotmail.com

### 5.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回復)과 부흥(復興, Revival)

청교도 사상(Puritanism)은 미국 사상의 주류(主流)에서 중요한 위치(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서부의 프론티어(Frontier, 개척)정신,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사상(思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 사상은 단일(單一) 정신 또는 사상 체계(體系)로서는 가장 오래 유지(維持)되었고, 미국 역사 문화(文化) 형성(形成)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쳤다.

### 1) 미국의 뿌리,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Let's return to the Puritan spirit)

1620년 메이플라워(May Flower)호를 타고 온 미국 이민 1세대인 청교도 102명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라고 부른다. 이 필그림 파더스가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선조(先祖)들이다.

또한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청교도 운동을 주도(主導)한 청교도 지도자들은 경건한 새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권(市民權) 부여와 이민(移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基督教) 신자에게만 제한(制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헌장(憲章)에서 청교도 이주의 목적(目的)을 ‘하나님의 영광(榮光)과 교회의 선(善)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도의 자격으로 도덕적 무흠(無欠), 신앙의 고백(告白), 회심 체험(體驗)을 요구하였고, 그들에게 참정권(參政權)을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共同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 뉴잉글랜드는 진정한 성경(聖經)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죄가 없는 경건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제임스 2세(James II)는 뉴잉글랜드의 자치(自治) 정부를 부정(否定)하고 신대륙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을 강화하기 위해 총독(總督)을 파송한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이 일어나자 보스턴 사람들은 제임스 2세가 파송한 총독 앤드로스(Andros)를 체포하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獨立)을 거론하는 등 혁명적(革命的) 분위기가 고조(高調)되었다. 1691년 인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가 매사추세츠에 대한 새로운 면허장(免許狀)을 얻어 귀국(歸國)하였다. 그는 면허의 조건(條件)으로 뉴잉글랜드가 종교적인 관용(寬容)을 허락하고 참정권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擴大)할 것이며 왕이 임명한 총독을 받아들인다는데

동의(同意)하였다. 인크리스의 동의는 뉴잉글랜드를 프랑스나 독일 등의 침략(侵略)으로부터 보호(保護)하기 위한 방편(方便)이었지만 반세기가 넘게 청교도들이 자치적(自治的)으로 운영해오던 정치형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를 허락함으로써 정통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성도들이 다스리는 “언덕 위의 도시”(city on the hill)를 세우겠다는 청교도의 건국(建國)이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영국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의 개입(介入)으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함께 종교적 다원화(多元化) 시대가 열리면서 타 종교인과 이교도(異教徒)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도(熱

度)가 점점 떨어지고 회심(悔心)을 체험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민 2세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는 출석하나 형식적(形式的)인 신앙을 지닌 종교적 신자들이 늘어났다.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성경에 기초한 경건한 국가를 세우려는 청교도



도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1734년과 1735년 사이에 청교도 정신으로 충만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목사를 중심으로 노스햄튼에서 일어난 제1차 대각성운동과 1741년 이후 에드워즈와 영국 성공회 목사 조지 핏필드(George

## 필그림 파더스 이후 대각성 운동으로 교파초월 신앙 불붙여 독립전쟁 이후 유니테리언교회 되며 미국청교도운동 막 내려

의 꿈(dream)은 식어갔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 발을 디딘 모든 영국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었고, 또한 소위 “뉴잉글랜드 방식”(The New England Way)으로 알려진 바의 모든 면들을 반드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뉴잉글랜드에서 1734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시 대적 종교상황은 아메리카 신정(神政) 정치라 불리던 청교도 제1세대들의 실험은 100년도 채 안되어 완전(?) 종말(終末)을 고하던 때였다. 이렇듯 완전무결한 청교도 정신으로 온전한 신대륙 건설을 강조했던 세계관(世界觀)은 이제 과거(過去)의 일이 되었다. 이민 1세대의 청교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는 부흥 운동이 18세기 초반 코튼 매더(Cotton Mather) 목사를 비롯한 청교

Whitefield) 그리고 장로교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가(家)의 목사들과 연합을 통해 몇 해 동안 계속된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 결실(結實)을 맺었다.

### 2)대각성 운동의 시발점(始發點) 테오도르 프렐링후이젠(Theodorus Frelinghuysen, 1691-1747)

정준기에 의하면, “이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은 사실 1720년부터였고 그 대각성의 부흥의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지속(持續)시키는데 큰 역할(役割)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네덜란드 출신 테오도르 프렐링후이젠 선교사”로 본다. 조엘 비키(Joel R. Beeke)와 필자 역시 이에 적극 동의 한다.

청교도 제1차 대각성운동의 시발점으로서의 그의 역할

회심 경험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를 영적(靈的)으로 만나 보지 못한 자는 집사,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성찬(聖餐)에 참여 할 수 없다는 폭탄 같은 선언(宣言)도 감행했다. 신자(信者)의 생활은 종교적 의무(義務)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을 경배(敬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는 급진적(急進的)으로 부흥을 맞보며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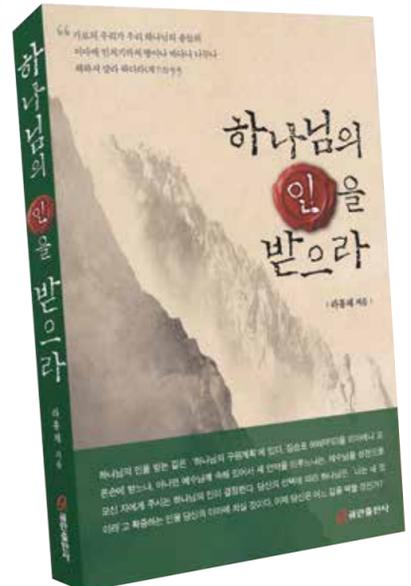
프렐링후이젠의 열매 맺는 목회(牧會)를 본 이웃 교회들은 그를 초빙(招聘)하기 시작했다. 넓은 미국 대륙을 순회(巡迴) 전도자 자격으로 돌면서 그는 신앙 회심(悔心)의 중요성과 신앙의 열매인 경건(敬虔)한 삶을 강조(強調)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전국 거점교회 모인 총대들과 '5시간 화상 총회'

미리보는 교단 총회 <1> 예상합동

9월은 '정기총회의 달'이라 불릴 만큼 한국 장로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 일정이 밀집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주요 교단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라는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그 준비과정과 절차,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단별로 총회 현황을 미리 들여다본다.

## 기감, 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내달로 연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연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다음 달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중부연회의 선거관자 명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부와 인천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연회는 지난 5월 제70회 연회에서 위임장만 내고 회의에 불참한 회원의 수가 재석 인원보다 많은 상태에서 선거관자를 확정했다. 선거관자는 교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을 의미한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21조 1항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기감 본부는 "중부연회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임장만으로 선거관자를 확정할 건 무효"라고 밝혔다. 선거관자 명단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 35개 거점 교회에 각각 50명 미만의 총대가 배정돼 화상으로 안전을 처리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여성 강도권과 안수' '전광훈 목사의 신학사상' '위어신학의 이단성' 등 교단 정체성의 핵심을 다루는 신학 분야에 쟁점이 많다. 대표적 보수교단으로 꼽히는 예상합동 총회에선 수년째 총회 때마다 '여성 안수 허용'을 촉구하는 총신대 여동문회의 파켓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현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현실의 벽이 높다. 올해는 신학부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 파송 및 사역개발위원회' 두 곳이 여성 강도권을 주제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단(사이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지난

## 예상합동 21일 '온라인 총회' ...22일 고신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은 10일 열린 총회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감염 확산 예방, 대사회적 교단 이미지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에서 개최예배로 시작하는 총회는 오후 7시에 파회할 예정이다. 새에덴교회는 본부 역할을 하고 화상회의가 가능한 전국 35개 거점 교회에서 분산 진행된다. 각 교회에는 50명 미만의 총회총대를 배

해 총회 결의에 따라 전광훈 목사의 발언과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총신대(총장 이재서) 정상화 관련 논의도 주목된다. 학내 사태로 임시이사 파송된 지 2년여 만에 정이사 체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사태 촉발의 원인이었던 총신대 정관 개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임원 및 개방이사 선임

## 기침 정기총회 내달 12일로 연기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제110차 정기총회를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기침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총회본부에서 임시 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장소는 경북 경주로 같다.

기침은 당초 온라인 총회 개최를 검토했다. 지난 1일 정기총회 의장단선거 후보 공청회는 유튜브로 가졌다. 총회 본부는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할 경우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다. 현재 기침 총회 규약에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별도의 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자력 규정에서 '총회 소속'을 삭제해 교단성을 없앴던 정관 개정안(2017년 9월)을 복원할 수 있도록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총회에서 '폐지'를 결의했던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1년 만에 복원하자는 현의안이 올라와 있어 화상회의에서 찬반양론이 맞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총회실행위원회가 운영이사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결의한 '총신대 후원이사회 조직' 건이 총신대의 재정난 해소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 손 모음과 편 손이 필요합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 8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항구 창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도, 성도들과 함께 몇 번 다녀온 선교현장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 폭발참사로 현재(8월 9일) 135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다쳤다. 30만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베이루트시 인구가 약 180만 명인데, 6분의 1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17조8천억에 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폭발의 위력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3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던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가 생지옥의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레바논은 국가붕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외환관리 실패로 레바논 파운드화는 80% 폭락했고, 실업 급증과 함께 약 6백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이다. 서방과 주변국들의 원조에 의지하던 경제가 코로나19로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반정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고동당하고 있는 레바논 내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때보다도 레바논에 대한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참혹한 피해현장 사진이나 뉴스를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현지 선교사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 폭발 충격으로 많은 사람이 고열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들 중에도 폭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끼니를 때우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레바논 선교지를 위해 특별기도와 후원을 하고자 한다. 손 모음의 기도와 편 손의 구제가 필요하다.

"고별료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10:31).

###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도론토 서부장로교회)

## 손 모음과 편 손이 필요합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지난 8월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항구 창고에 오래 보관되어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의 선교지도, 성도들과 함께 몇 번 다녀온 선교현장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 폭발참사로 현재(8월 9일) 135명이 사망하고 5천 명이 다쳤다. 30만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베이루트시 인구가 약 180만 명인데, 6분의 1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 망연자실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도 17조8천억에 달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폭발의 위력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30%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던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도시 베이루트가 생지옥의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레바논은 국가붕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부정부패와 외환관리 실패로 레바논 파운드화는 80% 폭락했고, 실업 급증과 함께 약 6백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곤상태이다. 서방과 주변국들의 원조에 의지하던 경제가 코로나19로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연일 거리로 나와 반정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고동당하고 있는 레바논 내 15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느 때보다도 레바논에 대한 뜨거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참혹한 피해현장 사진이나 뉴스를 보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현지 선교사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 폭발 충격으로 많은 사람이 고열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들 중에도 폭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끼니를 때우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레바논 선교지를 위해 특별기도와 후원을 하고자 한다. 손 모음의 기도와 편 손의 구제가 필요하다.

"고별료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10:31).

bible66@gmail.com

## "예상합동, WEA와 계속 교류해 달라"

복음주의 신학자 및 원로 목회자들 기자회견 열고 촉구

복음주의 신학자와 원로 목회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승삼 세계선교협의회 전 사무총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전 회장, 김상복 WEA 전 의장,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 박용규 총신대 신대원 교수, 성남용 총신대 목회전문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은선 안양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열리는 예상합동 정기총회에 'WEA와 교류를 단절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의안이 또다시 상정되자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예상합동은 지난해 열린 104회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 단절을 요구하는 현의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로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WEA는 전 세계 6억 명의 복음주의 개신교인을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많은 영향력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고 세계 선교에도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예상합

동이 WEA와 교류를 단절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재문하는 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4년 동안 연구를 거쳐 지난해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WEA는 교단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던 결의를 재문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회장에 곧 취임하는 소강석 목사가 고립주의 대신 보수 복음주의 연대를 통해 더욱 더 약하고 발전하는 교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11년 WEA와 세계교회협의회(WCC), 로마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선교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용규 교수는 "선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김상복 목사도 "당시 합의는 직전 총회가 진행한 것으로 지금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WEA 신임 총무인 에브라임 텐데로 목사가 장 목사의 활동 배경인 WEA 복미협의 회'를 아예 없었다"면서 "이후 장 목사와 WEA의 관계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 여파 장기기증 희망자 27% 감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집계...올해 8월까지 4만5713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1-8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를 집계한 결과, 4만57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918명에 비해 27.3%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등록자는 매월 5000명 정도 수준"이라며 "이 추세라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등록자 수가 7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운동본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비대면 캠페인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참여를 독려하는 '아임 도너(I'm Donor) 챌린지'를 진행한다. 운동본부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제정해 치고 있다. 1명의 장기기증 실천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각 개인이 SNS에 자신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실을 인증해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기증의 의미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미 자신의 SNS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한 연예인과 국회의원도 있다. 가수 류지광은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임도너챌린지'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배우 황보라 역시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아임도너챌린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등록증 사진을 올렸다(사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같은 날 아임도너 챌린지 인증 사진을 올렸다.

운동본부 측은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이식만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을 위한 비대면 캠페인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 2심서도 "학생 비방 목적 아니다" 무죄 판결

다자성에 옹호 학생에 고소당한 한동대 교수

폴리아모리다(다자성)를 옹호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한 학생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명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원철 한동대 명예교수는 2018년 11월 A학생이 관련된 다자성에 사건의 바뀐 해결을 바라며 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같은 교회 성도 19명이 있는 카카오톡에 올렸다. A학생이 이 사실을 알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교수의 게시글이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한동대

를 위한 긴급 기도요청을 드립니다'로 시작해 '진리의 정의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로 끝난다"면서 "19명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수가 게시글에서 '최악의 세속화, 저급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목적이 A 학생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의 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교수는 "과도한 인권과 평등 논리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앞장서 보호하고 설립 목적을 뒤늦게 저지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교회모임 줄어 교제 못해 아쉽다"

학원복음화협 캠퍼스청년연구소 '코로나로 인한 의식변화'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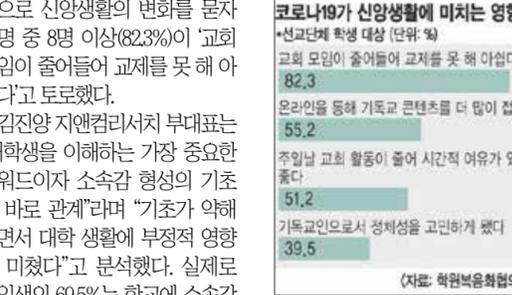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학 내 관계 형성이 어렵고 소속감이 부족해 아쉬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원복음화협회 캠퍼스청년연구소는 8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분석하는 온라인 포럼을 열고 청년·캠퍼스 사역 전략을 논의했다.

캠퍼스청년연구소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7월 30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대학 1학년 200명과 2학년 이상 200명, 선교단체 활동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의식 변화'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8%는 학교 친구들 모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59.5%가 지인과의 관계 감소를 부정적인 변

화로 평가했다. 특히 신입생 중 68.0%는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답했다. 선교단체 학생 중 교회에 출석하는 248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변화를 묻자 10명 중 8명 이상(82.3%)이 '교회 모임이 줄어들어 교제를 못해 아쉽다'고 토론했다.

김진양 지앤컴리서치 부대표는 "대학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소속감 형성의 기초가 바로 관계"라며 "기초가 약해지면서 대학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입생의 69.5%는 학교에 소속감



구분	8월 1일	8월 31일
1. 총자산	2,200	2,200
2. 총부채	26	218
3. 순자산	2,174	1,982
4. 총자산	2,200	2,200
5. 총부채	26	218
6. 순자산	2,174	1,982

# 선교의 창 (15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 인간과 종교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궁극적인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 왔다. 이는 종교가 싹트는 시발점이었다.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무엇을 믿든, 인간은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파생적이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성적 인간"이라 하기보다 "종교적 인간"이라 해야 한다. 심지어 종교를 갖지 않는 자도 나름대로 "무신론"이라는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한 전 단계이다.

### 1. 종교의 기원

종교는 인류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한 것이다. 이는 원시시대에는 물론이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종교의 기원은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진화론

적 관점이다. 인류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영국의 타일러(Edward B. Tylor)는 종교의 기원을 원시시대 정령숭배사상에서 찾는다. 저들 "원시인들은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있으며 그것은 육체를 벗어나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프레이저(James Frazer)라는 종교학자 역시 인간의 의식은 주술, 중

교, 과학의 단계를 통해 진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이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이 종교를 만든다고 보았다. 종교란 인간 생각의 투영(Projection)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릴 적 보호자였던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입

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은 "종교는 인간 사회의 필요성 때문에 생기고 계속 존재한다. 종교는 주술과 달리 처음부터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적 선과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통합된다"고 보았다.

### 2. 종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고대로부터 종교는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 와서 종교는 신과의 관계보다는 인간의 내재적 요소 속에서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한다.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무한한 존재를 지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덕성을 감화시킨다(몰리).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와 신뢰이다(타일러). 종교를 성스러운 것들과 관련된 믿음과 실천의 통합된 체제라고 한다(듀크하임). 의지 곧 실천 이성에 기초를 두고, 종교를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둔다(

의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말한다(벌코프). 물질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가 종교의 핵심이다(윌리엄 제임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리처드 도킨스).

### 3. 인간이 종교를 갖는 이유

종교가 탄생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한한 존재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체, 즉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결국 인간은 자신들의 유한함을 극복해줄 수 있는 궁극적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인간의 공허함 때문이다. 인간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존재이다. 문제는 인간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러한 죄의식이 인간의 핵심이다(윌리엄 제임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리처드 도킨스).

셋째는 인간의 죄의식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일생동안 수많은 죄를 짓는다. 이로써 인간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선한 행위가 보상받고, 악한 행위가

### 4. 세계의 종교 현황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을까? <https://www.theregister.com> 자료에 의하면 약 4,300의 종교가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향 길에 있는 종교들까지 합한다면 약 2만개로 여림잡기도 한다. 종교인구비율은 어떠한가? 미국 유명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

타났다. 유대교 0.2%이다. 아프리카 중국, 전통 미국 원주민 오세아니아 원주민 등 각 지역의 토속종교도 인구의 5.7%를 차지했다. 그 외 바하이 신앙(Bahai faith), 인도 자이나교(Jainism), 시크교(Sikhism), 일본 신도(Shintoism), 도교(Taoism), 천리교(Tenrikyo), 위카(Wicca), 조로아스터교(Zoroastrianism) 등 기타 종교도 소수이지만 0.8%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혀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인 경우는 16%로서 12억 이상이다.

### 결론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유한하며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를 찾고 의존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인간이 주인이 되었고 신은 인간을 돕는 필요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많은 인간집단들은 자기를 욕구대로 다양한 종교들을 창안해 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 종교가 성행하는 근본 이유이다.

진정한 종교란 어떤 것인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노력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서 내려오는 은총이어야 한다. 피조물이 만든 우상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참 종교란 절대자에 의해 계시된 진리만이 인간을 복되게 하고 평강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종교가 있는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1:20).

jrson007@hanmail.net

**종교의 3대 요소는 교주(敎主), 교리敎理), 교단(敎團)이다. 지금 세계는 16%의 무종교인과 84%의 종교인으로 구분된다. 종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없는 선교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되기 쉽다.**

칸트). 종교의 자리가 지성 속에 있다고 본다(헤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흠). 종교란 무한자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슐라이에르마허). 엄청난 동시 매혹적인 신비의 체험이다(오토). 종교란 내적 요소들을 정화하는 믿음의 힘이다(화이트헤드). 최종적이거나 최상의 관심사이다(유진 니다). 종교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깊은 근원과 접촉하고,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며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인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시도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이로서 인간은 영적인 공허감과 삶의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궁극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

셋째는 인간의 죄의식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일생동안 수많은 죄를 짓는다. 이로써 인간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선한 행위가 보상받고, 악한 행위가

(The Pew Research Center)는 2015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종교상황(The Global Religious Landscape)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84%가 각종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별로 나눠보면 기독교(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가 가장 많은 31.2%이다. 이슬람교는 24.1%로서 가장 빠른 추세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어 힌두교 15.1%, 불교 6.9% 순으로 나

# 드라마 예언서 (7)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나1:1)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7세기경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문(테베)라고도 불리며, 현재 이집트의 룩소 Luxor)이 멸망(나3:8-10, BC 663)하고 니스웨(앗수르/앗시리아)가 멸망하기 전(나1:8-9, 3:17-18, BC 61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와 미가서에 이어서 나훔서를 읽습니다.

### 나훔서의 배경

나훔서는 잔인하고 교만하며 극도의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니스웨(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외에 다른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열방의 진정한 왕' 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실 니스웨의 심판은 약

100년 전에 요나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던 니스웨 사람들(은3:4-9)을 하나

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은3:10). 그러나 그들은 또 다시 교만과 잔인함의 죄악을 저질렀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앗수르의 마지막 왕인 '앗수르바니팔' 때), 마지막으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니스웨는 결국 나훔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된 후 4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나1장)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니스웨의 멸망'(나2-3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 나훔서의 내용

엘고스 사람 나훔에게 임한 니스웨에 대한 경고의 묵시입니다(나1:1).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에는 느리시고 관용은 크시지만, 죄인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나1:2-3). 하나님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 속에서 걸으시며,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북방 이스라엘(마산과 갈멜)도 마르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도 시들게 하십니다. 산들도 갈라지게 하시며, 언덕들도 녹아내리게 하시는 큰 권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나1:4-5). 그런 하나님의 분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진

위로가 되며 기쁜 소식이 됩니다(나1:12-15).

2장은 니스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니스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기에 문에 낮춤말로 쓰겠습니다. 파과할 자(하나님의 군대)가 너(니스웨)를 치러 올라왔도다. 너는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과 야굽을 약탈하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을 주시러 오고 계시기 때문이다(나2:1-2). 너를 치러 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는 붉은 색 방패를 들고, 붉은 색 군복을 입고 있다. 그 군대가 행진할 때, 병거의 쇠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일어난다. 그 병거들은 온 거리를 사방으로 빠르게 달리며, 그 모양은 햇빛 같고 그 빠르기는 번개와도 같다. 그

고, 얼굴빛이 창백하게 되었다(나2:8-10). 그들은 새끼를 위해서 먹잇감을 술하게 죽이며 사냥을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갈퀴)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것이다. 너의 젊은 사자들은 칼을 맞고 죽을 것이며,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먹잇감을 허락하지 않겠다(나2:11-13).

3장은 멸망을 당한 니스웨의 처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의 도성인 니스웨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과 약탈과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니스웨를 치려고 병거가 오고 있다. 그 병거는 찢어지는 듯한 말쑥 소리와 요란한 바퀴소리를 내며 달려온다. 돌진하는 기병대,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시체 무더기! 그 시체위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진다(나3:1-3).

## 나훔서: BC 7세기경 니스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 100년 전 요나에 의해 선포됐으나 다시 악행 해

노의 불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보호하시는 요새입니다(나1:6-8).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스웨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 당하여,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묶임을 풀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저 산위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발이 있다. 앞으로 다시는 사악한 자들이 너(유다)를 대적하여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다에게는 큰

앗수르 왕)가 군대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맞서 대항해 보지만, 성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그 왕후(앗수르 왕의)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다(나2:3-7).

니스웨는 물이 가득 찬 연못처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였지만, 이제는 모두 도망을치고 있다. 멈추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고 있다. "금과 은을 모두 약탈하라! 쌓여 있던 재물이 끊어 없어!" 약탈을 당한 니스웨는 황폐하게 되었다. 니스웨 주민들은 낙담하여 무릎에 힘이 빠지고, 몸이 떨리

이 모든 것들이 유혹에 능숙한 음탕한 창녀가 많은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많은 나라들을 유혹하였고, 여러 족속들을 미혹하였다(나3:4).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 니스웨에게 맞서서) 너의 치마를 너의 얼굴까지 들어 올릴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너의 수치를 보게 할 것이다. 또한 가증하고 더러운 오물을 너에게 부어서 너를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 때 너를 보는 자들이 너에게서도 망치며 말하기를 '니스웨가 황폐하게 되었다. 니스웨를 위해

서 위로하거나 애곡해 줄 사람이라도 있을까?'라고 할 것이다(나3:4-7).

네가 강들이 둘러싸고 천연 요새속에 있던 노아문(이집트 테베)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노아문은 지원하던 구스와 애굽은 막강했고, 붓과 루빔이 노아문의 동맹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노아문도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다. 어린 아이들은 끌려가다가 길모퉁이의 모퉁이 돌에 매어짐을 당하여 죽었고, 노아문의 귀족들과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다(나3:8-10).

너도 심하게 취하여 숨을 곳을 찾을 것이다. 너의 모든 요새는 흔들면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질 것이다. 너의 군인들은 여인처럼 약하고, 너의 성문은 적들에게 활짝 열릴 것이며, 문의 빗장들을 모두 불에 타 것이다(나3:11-13). 너는 포위될 때를 대비하여 물을 준비해놓고, 산성을 견고하게 보수하고 진흙으로 벽돌 가마를 수리하여라. 그럴지라도 느치와 메뚜기 떼가 식물을 삼킨같이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황폐가 될 것이다(나3:14-17).

앗수르의 왕아! 너의 목자들을 잠을 자고 있고, 너의 귀족들도 편하게 누워서 쉬고 있고, 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모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너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없다. 너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의 멸망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 니스웨에게 항상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나3:18-19).

다음 시간에는 허박국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사도의 겸손한 인격(몬1:23-25)찬347장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태도를 강조했습니까? 첫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며 서로 신뢰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는 빌레몬의 목회적 신실한 겸손한 마음을 따라 목회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21). 교회는 신실한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

은 자기가 잠시 머물 방 하나를 부탁했습니다(22). 사도적 목회사역은 지도자의 경건한 성품인 겸손, 성결과 신실함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사도는 한결같은 움직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랐으며 매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혼란한 우리시대에 이런 목회사역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 화 사도의 축도(몬1:23-25)찬28장

사도의 축도는 3가지 중요한 일들을 포함시킵니다. 첫째, 사도는 감옥에 함께 고난 받는 동료의 문안을 언급합니다(23). 이것은 교회가 이런 헌신자들의 수고로 세워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열리가 여기 표현되었습니다. 둘째, 교회에 대한 동역자의 사역을 귀하게 여겼습니다(24). 신실한 일꾼들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확신은 동역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 교회에 충만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에 교회사역의 초점을 맞췄습니다(25).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때 모든 신령한 복이 위로부터 임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 수 예수그리스도의 계시(계1:1)찬241장

오늘부터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시대에 적절한 묵상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그것은 성부로 시작한 것으로 일정한 질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1). 하나님이 계시자이시고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며, 요한은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계시는 인격적입니다. 계시는 한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계시의 수증자인 천사에게 임한 계시는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 계시는 반드시 일어난 일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전파로 이 세상이 복음을 중심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줍니다. 특별계시의 사람이 됩니다.

### 목 복있는 자(계1:2-3)찬235장

복의 원천인 하나님 계시인 성경을 인격 대 인격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복됩니다. 첫째, 양심으로 읽는 자가 복됩니다. 여기 읽는 자란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공적 예배에 계시를 낭독하며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자는 계시 때문에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둘째, 듣는 자가 복됩니다. 그 계시를 마음에 잘 받는 자가 복됩니다. 마음에 잘 받아 인내함으

로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모든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키는 자가 복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 곧 계시를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 그 계시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 길을 감시합니다.

### 금 요한의 문안(계1:4-5)찬61장

요한이 보낸 문안은 계시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교회가 누릴 복의 열매입니다. 첫째, 그 계시는 교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4). 아시아 일곱 교회만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심정으로 계시를 받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시를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계시는 성부의 계시이고 성령의 계시이고 성자의 계시임이 여기 또 나옵니다(4-5). 어제나 오늘이나 장

차 나타나실 성부만이 교회가 가질 은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이 복을 적용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복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셋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평강이 임합니다(5). 먼저가 은혜이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바로 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중심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합시다.

### 토 구속을 이루신 예수(계1:5-6)찬202장

요한의 계시는 성삼위 중에서도 성자의 구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자의 구속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5).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불변하는 언약관계로 사랑과 순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부의 보좌로 나아가 그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분명히 이루신 성자의 구속을 즐기며 증거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주제로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 여러 후회가 있을 텐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잘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분명히 잘했을 것입니다. 운동이 그렇고, 다이어트, 공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몇 년 후에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며칠전 같이 거주하는 선교사님들과 2020년은 우리 삶에서 절대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가장 길고 심각했던 장마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려움을 은혜로 잘 이겨냈다고 2020년을 추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어 한마디씩 공부한다면 1년 후 적어도 365개 중 10%만 기억한다 해도 36개의 문장을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이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삶에서 후회는 거의 없었을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 다시 힘을 내봅시다.

오늘 소개할 앱은 영어공부 앱입니다.

수많은 유료앱을 제치고 유료보다 좋은 무료앱으로 알려진 Cake이라는 앱입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폰은 물론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중 중요한 한 문장을 말하게 하는 것인데 반복학습을 통해 익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다보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반복입니다. 이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않으면 반복만큼 어떤 것을 잘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동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골프에서 Short game을 잘 하려면 수많은 반복훈련을 통해 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Muscle memory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육이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뇌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할 만큼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스마트폰을 잘 하려면 배운 부분을 반복을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재미가 없으니 남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앱은 아주 좋습니다. Playstore에서는 cake 무료영어학습, Appstore에서는 cake learn English 라고 입력하여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Logo와 같은지 확인하시어 엉뚱한 앱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시오. 회원가입이 끝나면 여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오늘의 공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동영상도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눌러 동작시키십시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래 부분에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들리시는 분은 아래의 문장을 보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사실 이런 분은 공부 필요 없지만) 아래 문장을 보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배운 문장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랫부분의 따라하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장을 말하면 평가를 해줍니다. A를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이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아랫부분의 리스닝 퀴즈 도전도 한 번 해보시지요? 오늘 배운 문장을 선택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배운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 번 들었던 대화문장도 시도해 보십시오. 어렵다고요? 예, 처음 하시는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아생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마 뭐 이렇게 쉬운 것을 보내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시도해 보고나선 어떠셨나요?

‘아! 이 친구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썼어’ 하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99%는 핑계입니다. 스마트폰도, 영어도, 운동도, 성경읽기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짧지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여러분의 실력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만 부었을 뿐인데 쑥쑥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끗 차이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말하는 사람과 공부는 오늘부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는 오늘, 아니 바로 지금부터!!!

sj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웃음 상실 시대...다 같이 많이 웃어야 한다!

## 리더십저널, J. 스투어트 블랙 교수가 전해주는 웃음까지 챙겨주는 리더십 소개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의 사역과 구성원 개인의 활동이 모두 위축된 시기, 반복적으로 들리는 전염의 소식과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은 우리의 마음 역시 위축시키기 쉽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방역지침을 지킨 오프라인 모임이나, 온라인 화상 모임 등을 시도하며 익숙했던 일상의 기쁨을 되새기려 노력하지만 분명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프랑스의 유명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의 교수 스투어트 블랙(J. Stewart Black)은 우리 행복의 많은 부분, 나아가 우리의 생산성은 물리적 근접성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대처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거된 물리적 근접성을 통신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큰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웃음"의 상실이다.

세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그룹의 웃음을 권장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신경 쓰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소그룹의 웃음 회복을 위해 신경 써야 할 5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무의식적으로 리더를 쳐다본다. 웃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리더의 미소다. 목소리 톤 역시 중요하다. 살짝 높은 톤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원한다는 신호가 된다.

### 1. 때론 속도를 늦추라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소그룹원들의 집중력이 오프라인만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 부

### 4. 웃는 모범을 보이라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웃음 역



## 웃음의 유익: 면역향상, 스트레스 해소, 통증감소,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 리더는 소그룹원의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연결과 재연결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우리가 웃을 때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와 통증을 완화하며, 도파민이 분비돼 학습, 동기부여,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웃음에는 면역향상, 스트레스 해소, 통증 감소,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 등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유익이 있다.

담감에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임을 마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는 모임의 목적을 재빨리 달성하고 마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소그룹원들이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재연결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웃음의 미세한 감싸라도 보인다면, 이를 위해 진행을 잠깐 미루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줄 알아야 한다.

시 전염된다. 리더가 직접 웃는 것만큼 팀원들을 웃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금세 구별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 5. 리더가 먼저 즐거움을 찾으라

온라인 모임을 하기 전에 소그룹 리더 자신이 먼저 즐거운 상태가 돼야 한다. 즐거운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는 단지 몇 초라도 의도적으로 웃고 나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 역시 좋다.

### 2. 카메라를 켜게 하라

웃음은 청각과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사람들이 웃음을 더 잘 감지하도록 소용의 채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라. 모두가 카메라를 켜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온라인 모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웃음의 문제는 늘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그룹 리더로서 웃음이 넘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 3. 미소 띤 모습에 약간 높은 톤으로 말하라

사람들은 모임 중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을지 파악하고자 할 때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웃음을 잃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 외에도 사회활동이 억제돼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이유 없이 따라 웃는 웃음"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할 때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웃음의 감소"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적인 모임을 진행하다보면 소그룹의 리더는 진행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웃음의 중요성은 뒷전이 되기 쉽다. 그렇기에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이 많이 웃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웃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더가 게그맨 행

## 원로칼럼

### 비대면 예배?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내가 처음 스위스를 가본 것은 1972년이었다. 마침 주일이 되어 취리히(Zurich)에 '물교회' 즉 쾰빙글리(Zwingli)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를 '물교회'라고 한 것은 교회의 기둥 절반이 취리히 호숫가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어서 나는 스위스 개혁신교회의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다.

쾰빙글리는 칼빈(J. Calvin)과 더불어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다.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4년 후에 마침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세계 칼빈학회 참석차 취리히에 머물면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교회당 문을 두드리니 관리인이 때문에 달린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웃교회와 합해 버리고 이 교회는 없어지고 지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어찌하여 종교개혁의 본산지, 그것도 쾰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다니...하면서 울분이 쳐 올랐다.

그때도 나는 주일이므로 교회 마당 의자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찬송 몇 장을 부르고 오래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말하자면 내에게는 일인 예배였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서구 교회의 문 닫은 교회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 나의 쓸쓸한 경험이 오래 오래 가슴에 남는다.

"뭘! 비대면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만남(Ontmoeting met God en Zijn Volk)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 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召命, Calling)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 것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Institute, IV, X.VII, 44 p.14)에는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예배(Corporate Worship) 즉, 공동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 첫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With God)의 예배여야 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예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응답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둘째, 개혁과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of God)의 예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셋째, 개혁과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Unto God)이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예배들이 매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나오도록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잘못된 예배인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화려한 쇼나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청중을 울고, 웃기는 일에 만족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정부에서는 아예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하라'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고 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금 정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세운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곧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었고, 그냥 예배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고운 새색시처럼 순종만 하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했는지, '불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나은 것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 합정에 빠진 꼴이 되었다. 그렇게도 말 잘하는 목사들이 어찌서 꼴 먹은 병어리가 되었는가? 신학을 잘못 배웠거나 양심불량이 아닐까?

나는 자꾸 35년 전에 종교개혁자 쾰빙글리가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혼자 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드린 생각이 자꾸 난다.

skc0727@yahoo.com

##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첫날 저녁강사인 황성주 목사는 이번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배 변화에 주목"해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통만 부여잡고 있다는 모든 것 잃을 수도 얘기다. 특히 '의식예배'에서 '삶의 예배'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모임들을 소그룹 공동체로 대체하며 성도 각자 '만인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짐이다. 또한 디지털·스마트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한다.

황 목사는 "코로나19를 통해 창조적 사역과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파상적으로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중국과 이란, 유럽 전역, 미국, 그리고 중동과 인도권, 중남미를 흔들고 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신속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나라 완성의 기회다.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자"고 전했다.

의사로, 교수로, 경영자로, 저술가로, 사진작가로, 목회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인 삶을 꽃피우고 있는 황성주 박사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멀티 플레이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독일 프라운호퍼 암 전문 병원에서 통합의학과 전인치료의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시행되던 자연면역요법인 미슬도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지난 22년 동안 현대의학과 면역요법의 감정을 결합한 통합면역치료의학을 분야를 개척하여 수만 명의 암환자에게 통합의학적 치료를 시행했다.

요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편 면역력 증강과 체력 증진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황 목사는 현재는 △KWMA(한국세계선교회) 이사장 △사랑의병원 병원장 △카이롬 통합의학연구소 센터 원장 △대한암협회 이사도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사랑의봉사단 설립자이자 국제대표이며 △꿈의학교 이사장 △꿈이



-강사 황성주 목사

-9월 18일(금) 저녁집회, 19일(토) 오전 목회세미나 인도

법,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카테일 암 치료법", "황성주 박사의 생애와 건강", "다자연설스러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모든 그룹이 다 공유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이라는 말이 부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유일한 용어도 아니다. '성령 능력 받은 기독교 탐구'

#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 2020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9월 18-20일 프라미스교회

코로나팬데믹 속에서도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20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9월 18일부터 사흘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다.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로 매년 6월말-7월 중순 사이에 열렸던 할렐루야대회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돼왔다.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금번 대회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며 "모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집회가 치러진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뉴욕교계에는 치유와 예배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열려갈 줄 믿는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두 함께 연합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원한다"며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를 외쳤다.

또 15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마이클 조 선교사 기자회견에서 양민석 회장은 "대회에서는 교계가 어떻게 1세와 2세를 연결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디테일한 실천부분은 21일(월), IM선교회 사역 소개를 통해 나눌 것"이라며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도움이 된다면 서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주일 후인 25일(금)과 26일(토) 오후 7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리는 청소년대회는 Patrick Chi(Arumdaun Church)와 Jehoshua Kim(Pursuit NYC)을 강사로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이번 집회는 이 세대가 경험하는 교회와 세상의 문화적 거리와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마이클조선교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

-9월 19일(토) 저녁집회, 20일(주일) 저녁집회 인도

둘째 날인 19일(토) 저녁과 20일(주일) 저녁집회 강사로 선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번 집회에서 첫날은 간증 위주로 가고, 둘째 날은 "코로나 성도"라

를 통해 이전보다 더 좋은 나은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도 산골마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던 조 선교사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군대복무 중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

와 부모들에게 자신의 굴곡진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간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IM선교회(International English Mission)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 선교단체로, 현재 해외 각지에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LA지역에 미국지부를 설립했다.

미국 지부는 미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의 캠프 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예수복제소(복음, 제사, 소명) 캠프, 미다살(미국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영성캠프 등 이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한국본회는 캠프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혹은 유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라난 뿌리가 왜 중요한지 국가관을 통해 알아가며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가치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는 '선교사'양성이라는 IM선교회의 사명 아래 다음세대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신앙의 영역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고히 하며 생활의 영역에서 공동체성을 고양하고 학습에 영역에서 이타성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여 선교완

### "코로나19 이후 예배 변화에 주목" 하는 메시지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치유 캠프, 전인 치유 학교, 암 오픈 클리닉을 개설했고, 국제 암 면역 세미나를 주도했다. 특히 암 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은 지난 10년 동안 주

있는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미남침례교단 소속으로 주요 저서로는 "꿈의 씨앗을 심어라", "황성주의 건강하게 사는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 "사랑의 치유일지", "황성주 박사의 플라즈마 건강학", "디지털 시편 23편" 등이 있다.

### 첫날은 간증 위주로, 둘째 날은 "코로나 성도" 주제로

는 주제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나눈다. 조 선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면은 강력한 예배, 비대면은 교육 강화

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번의 성공과 좌절을 거듭하며 현재의 IM선교회를 통해 차세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다. 조 선교사는 특히 다음세대

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선교회 외에도 필리핀 ANTS 신학교 학장, IM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성령의 능력 받은 ...**  
(3면에서 계속)  
로백은 1984년부터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ecumenical dialogues)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성령 능력 받은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일부 신자들에게 그

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것이지만, 필요 없는 벽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동안 '리뉴얼리스트(renewalis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존슨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가 신조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보

다 자연스러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모든 그룹이 다 공유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이라는 말이 부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유일한 용어도 아니다. '성령 능력 받은 기독교 탐구'

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구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2050년까지 성령 능력 받은 크리스천의 수가 1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전체 크리스천의 약 3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셋 중 한 명이 성령세례를 받는 그때

도 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논쟁하고 있을 것이다. "항상 논쟁 중인 문제"라고 보스턴대학교의 오순절주의 신학자 니미 와리보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이다. 미국인들은

사람들에게 서구의 기원을 상기시켜줄 그런 용어를 종종 원한다. 그러나 본질은 지리적 기원이 아니다. 역사도, 교리도, 숫자도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성령이며 그리고 성령은 움직인다."

##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b>추천 도서</b>	<b>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b> 신영, 시와정신사	<b>모두 거짓말을 한다</b> EVERYBODY LIES 시스앤앤스 데오워즈, 데스트	<b>침묵</b> 앤드 슈사쿠 홍성사	<b>말그릇</b> 김윤나 카시오페아	<b>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b>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b>후원</b>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b>도서구입처</b>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